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하버드, 중국 유학생 늘고 한인 유학생 줄고

미국내 유학생 9% 증가,
한인 유학생 8% 감소
하버드 중국출신 유학생
2008년 이후 두배로 증가



하버드 대학, 2008년 비해 한국 출신 유학생은 5% 줄고 중국 유학생은 85% 증가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하버드 대학과 MIT의 중국 출신 유학생은 2008년 이래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 언론 담당국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은 284명으로 중국 778명, 캐나다 636명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2013년 293명, 2012년 304명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든 수치다.

한편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2008년 421명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현재 두 배에 가까운 수로 늘어난 셈이다.

언론 담당국 디렉터 마이클 코너(Michael Conner)는 “하버드의 통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해당 국가(한국)

의 경제 상황이나 교육 추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MIT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MIT 유학생 사무실이 2009년 가을 학기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출신 유학생은 288명으로 중국 학생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3년 한국 유학생들은 260명으로 줄어 4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 유학생들은 2009년 452명에서 2013년 683명으로 51% 증가해 한국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비스(SEVIS, 유학생 온라인감시 시스템)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는 이와 같은 추

세가 미전국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 이 기관은 전체 유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매년 급증하는 중국과 인도 유학생에 비해 한국 유학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국제 유학생 수는 약 111만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 출신 유학생은 각각 22%와 21% 증가했고 한국은 비록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4월에 비해 8% 감소해 유학생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로 집계됐다.

dyoo9146@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주 최초 한인판사 탄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사상 최초로 한인 판사가 탄생했다. 보스톤의 인권 변호사 전명진 씨(43)가 한인으로서 사상 최초이며 아시아인으로는 12번째



매사추세츠 첫 한인 판사 전명진 씨

매사추세츠 판사로 임명승인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위원회는 지난 19일 보스톤 지방 법원 판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아 공식 판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9월 12일 전명진 변호사를 보스톤지법 판사로 지명했다.

전 판사는 “매사추세츠 판사로서 봉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 보스톤 지법은 사회, 인간 그리고 법 문제들이 교차하는 민사 형사 소송을 관할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나를 판사로 임명한 드벌 패트릭 주지사 그리고 임명을 동의한 주지사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이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불박이 책꽂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한인 청년들의 네트워킹 모임 '고리' 보스톤서 열려

결혼 주선 및 이성 만남의 장 이미지 탈피

비즈니스·학업 등 폭 넓은 한인 네트워킹 기회 마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는 21일 금요일 미국 내 한인들의 탄탄한 네트워킹을 위한 '고리(GORI)' 행사에 보스톤 20, 30대의 청년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1,3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고리(대표 문동지)'는 명칭대로 한인들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연결고리를 만드는 취지로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봄 보스톤에 처음 런칭되어 반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고리 행사는 이번이 보스톤에서의 네 번째 모임이다.

고리 보스톤 매니저인 백승민 씨(MIT 슬로언)는 "초기에는 결혼이나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고 행사의 이미지도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적이면서 사교적인 취지가 잘 융화된 모임을 추구하고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백 씨는 학업이나 비즈니스 등 다양한 면에서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폭 넓은 네트워킹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스톤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

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로 모르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가 다양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 화기에 애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듯 고리는 매년 성공적인 이벤트를 개최해왔다고 백 씨는 전했다.

고리의 문동지 대표는 "술자리나 종교 단체 등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어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만남을 주선하는 사고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이번 보스톤 행사가 "단타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1년 뉴욕에서 시작된 고리는 점차 영향력을 넓혀 2013년 봄에 보스톤 입성, 워싱턴 등의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리는 지난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원한 글로벌 케이 스타트업(Global K Startup) 프로그램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뉴욕에서 주관해 한국 스타트업들과 미국 스타트업 관련 사람들을 연결해준 바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한인 학생들과 회사를 연결해주는 커리어 엑스포(Career Expo), 한인



한인청년 네트워킹 행사 '고리'가 21일 저녁 보스톤 에메랄드 라운지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다



뉴욕에서 처음 시작한 '고리'가 보스톤에서 네 번째 모임을 주최한다

이민 1세대와 1.5 혹은 2세대를 연결하는 행사(Generation to Generation), 캐나다 토론토 런칭 등을 내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

고리 보스톤 행사는 오는 21일 금요일 보스톤 소재 에메랄드 라운지(Emerald Lounge)에서 열린다. 참가 등록은 당일까지 고리 웹사이트(<http://www.gorisocialclub.com>)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11시

장소: 에메랄드 라운지 (200 Stuart St, Boston, Massachusetts 02116)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 범죄자 취급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 보험증 부정 사용자 추정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4천억원 손실
보험미가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만명 탓으로 싸잡아 매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을 싸잡아 '과립치법'으로 추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남용, 한 해 동안 4천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무보험 외국인들과 함께 손실을 내는 주범이다. 2012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152만명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며 이들을 건강보험 부정 사용자로 간주해 4천 4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산출한 것이다.

위의 손실금액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가입자 58만명이 건



강보험 진료를 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가 1인당 연평균 46만8천85원이었던 것을 근거로 했다. 이 46만8천85원을 94만명에 곱해 손실금액을 산출한 속내에는 한국 거주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 94만명을 모조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버젓이 드러낸 것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추정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94만명은 과립치한 범죄자가 돼버린 셈이다.

유죄로 법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적 적용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공공기관이 엄연한 자국민인 재외동포를 건강보험법 위반자로 '추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처럼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부정사용자로 간주해 손해 본다는 식의 발표는 결국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LA에서 활동하는 김한신 변호사는 "재외국민을 부정 사용자로 모는 건강보험 재단의 발표는 결국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될 뿐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서강대 동문회 송년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강대 동문회(회장 이수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오는 12월 6일 토요일 뉴튼 소재 시푸드 점보 레스토랑 (Seafood Jumbo Restaurant)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 이 회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알찬 송년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꾸며보려고 한다"며 "지난 애플피킹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문들도 이번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 회장 자택에 모여 다양한 송년 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동문회 문의는 617-559-9869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점보 시푸드 레스토랑(10 Langley Rd, Newton, MA 02459)

식사 후 송년 모임(16 Sharpe Rd,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힐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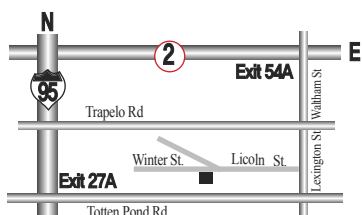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버드, 동양계 학생 입학 차별로 피소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 동양계 학생 차별하는 도구로 쓰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공정한 대학 입시를 바라는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비영리단체는 지난 17일 월요일 하버드 대학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이 동양계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하버드 대학이 "학업 성적이 뛰어난 동양계 학생들을 차별해 이들의 입학 수를 제한하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버드는 동

양계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내 걸며 결국 동양계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만든다"며 "하버드의 입학 통계 자료는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버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자신들의 입학 제도는 어떠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율리아노(Robert Iuliano) 하버드 대학 법무 자문위원은 '캘리포니아대 학교 이사회 대 바키 판결(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을 언급하며 하버드 대학의 입학 제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판결은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1978년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또한 같은 이유로 지난 17일 피소되어 미국 대학 내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바라는 학생들'은 입학 제도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로 텍사스 오스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4살때 46불로 시작한 미국 삶 40대에 매사추세츠 최초 한인판사

▶▶1면에 이어서
"고덧붙였다.

아시아인 변호사 협회 페기 호 회장은 19일 보낸 이메일 소식지에서 "우리는 전명진 판사의 보스톤 지법 중앙부서 판사로 승진된 것에 대해 축하하며 드별 패트릭 주지사의 역사적인 임명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드별 패트릭 주지사는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매사추세츠 최초의 흑인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또 재선됐다. 드별 패트릭은 매사추세츠 최초의 한인 판사를 지명해 한인사회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2007년부터 전 판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현재 알링턴에서 형사 소송 및 인권 변호를 하고 있는 전명진 판사 지명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하워드 프리드만 법률 회사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일했다.

전 판사는 올해 형사소송 분야에서 매사추세츠 슈퍼 로이어(Super Lawyers)에 선출됐으며 미 법률변호 협회(American Society of Legal Advocates)의 2014년 형사소송분야 100대 변호사로 선정되기

도 했다. 2013년도에는 미국소송변호사 협회(The National Trial Lawyers Association)가 선정한 40대 이하의 최고 40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전 판사는 보스톤 교외 알링턴에서 부인 김수연 씨와 슬하에 전진수(Marshall Joun, 14), 전기수(Stuart Joun, 9)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전 판사는 한국에서 태어난 4살 되던 해 어머니 방금순 씨, 두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판사가 되는 입지전적 삶을 살았다. 비행기 값을 제하고 남은 46불로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의 어머니는 의류공장에서 바느질공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전 판사는 지난 90년 보스톤대학(BU)에 입학했으나 학자금 없이 자퇴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군대에 지원해 군 장학금으로 매사추세츠 주립대(UMass)에서 정치와 철학을 전공했다. 한 체인스토어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서퍽 법대 야간 대학원을 99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editor@bostonkorea.com

민주평통, 한미평화 포럼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주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이 지난 13일 워싱턴 DC 하얏트 리전시 호텔 캐피털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인권 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크리스틴 윤 박사의 진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을 주제로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경대 수석 부의장, 안호영 주미대사, 마이크 혼다 의원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현 수석

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아 오고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성혁 보스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회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방안이 국제 공조로 이제 유엔 결의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북한체제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포럼에 참석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왼쪽), 김성혁 보스톤협의회 회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주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순조로운 운행

웹사이트 열린 주말에만
8천여명 보험 신청
내년 1월부터 보험혜택
받으려면 12월 23일까지
등록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바마케어 공개가입을 위한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의 웹사이트가 지난해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해 15일 이후 5일만에 총 가입자가 3만6천여명을 돌파했다.

매사추세츠 오바마케어를 관장하고 보험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헬스커넥터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 8시경에 열렸다.

19일 수요일까지 4만여명이 헬스커넥터 시스템에 신규가입을 했으며 2만 5천명 이상이 보험 신청서를 제출했다. 헬스커넥터의 웹사이트는 지난 17일 월요일부터 매일 5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매일 1만3천건 이상의 보험 상담 문의가 콜 센터로 들어오는 등 올해 공개가입기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순조로운 시작을 선보였다.

지난해 시스템 상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신청에 불편을 겪은 바 어울해도 많은 주민들은 새로운 웹사이트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헬스

커넥터는 매년 “기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자신 있게 표명했고 15일 열린 웹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헬스커넥터 측에서는 웹사이트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웹사이트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한인 C씨에 따르면 “신청 등록이 가능하다(Eligible)고 났고 분명 놓친 자료도 없는데 화면이 멈춘 채 ‘정보 처리 중(In Progress)’ 이라는 메시지만 뜬다”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기존에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현재 보험이 없는 미가입자 모두 이번 공개가입기간에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시민

권,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 직장인 등의 단기 체류자도 포함되며 서류 미비자들도 일단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헬스커넥터 미디어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는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신청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www.mahealthconnector.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돕기 위한 헬스커넥터 콜 센터(877-623-6765)는 현재 연장운영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콜 센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연말 축제 시즌 알리는 크리스마스 점등식

퍼네일 홀 트리 점등식,
프로그 폰드 스케이트장 개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추수감사절이 채 오기도 전에 보스톤은 일찌감치 화려한 전구와 장식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에 한창이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점등식이 진행되며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질 예정이다. 오는 22일 토요일 퍼네일 홀(Faneuil Hall)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서면서 올 겨울 첫 점등식이 열린다.

퍼네일 홀의 트리의 높이는 무려 85피트로 록펠러 센터의 트리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스톤의 큰 자랑 중 하나다. 주최측의 말로는 작년 트리 점등식 당일에만 3만여명이 몰려 들었다고 하니 단연 보스톤의 큰 볼거리 중 하나로 인정할 만하다.

이날 점등식에는 35만개의 LED 전구와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홀리데이 팝이 어우러진 ‘블링크(Blink)’ 쇼가 시작된다. 보스톤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은 ‘블링크!’ 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매일 오후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12회에 걸쳐 홀리데이 팝을 틀어준다.

이 외에도 12월 2일에 코플리 스퀘어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트리 점등식이, 4일에 보스톤 커먼과 커먼웰스 애비뉴 몰에서 점등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보스톤 커먼의 프로그 폰드(Frog Pond)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가 22일 토요일로 올 시즌 첫 개장을 앞두고 있다.

입장료는 키에 따라 다르다. 58인치(147cm) 이상은 \$5, 이하는 무료 입장이다. 스케이트 대여는 어른 \$10, 어린이 \$5이며 락커 이용료는 \$2이다. 개인용 스케이트가 있다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열리는 칼리지 나잇(College night)에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2에 입장료를 구매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돌아온 겨울 스포츠의 시즌 뉴잉글랜드 스키장 알아보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매사추세츠와 인근 지역의 스키장 많은 곳은 현재 개장을 앞두고 시즌 패스를 세일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며칠 리조트에 묵으며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일치기로도 즐거운 스키장,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하고 신나는 겨울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나쇼바 벨리 스키장(Nashoba Valley Ski Area)

수준별 레슨을 제공하기로 알려져 있는 나쇼바 벨리 스키장은 보스톤 인근에서 가장 큰 스키장 중 하나로 시내에서 차로 한 시간 이내면 갈 수 있다. 인공 눈으로 관리하는 이곳은 스키, 스노우보드, 튜빙 모두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레슨은 스키장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12월 6일까지 올 겨울 시즌 패스를 \$50 할인된 가격(일반 \$625, 12세 미만 \$575)에 구매할 수 있다. 스키, 부츠, 폴 대여는 \$38이다. 개장 예정일은 12월 12일이며 내년 3월 31일까지 연다.

79 Powers Road, Westford, MA 01886
978-692-3033
<http://www.skinashoba.com>

▶블루 힐스 스키장(Blue Hills Ski Area)

12월 중순에 개장 예정인 블루 힐스 스키장은 캔톤에 위치해 있다. 보스톤 시내에서 차로 30분 이내면 갈 수 있으며 9개의 코스 가 마련되어 있다. 데일리 패스는 평일 오전 \$30, 오후 \$25에 즐길 수 있으며 주말에는 \$5 더 비싸다. 장비 대여는 스키, 부츠, 폴 포함 \$32이다. 시즌 패스는 11월 30일까지 등록 시 \$100 할인된 가격(\$349)에 끊을 수 있다.

4001 Washington Street, Canton, MA 02021
781-828-5070
www.bluehillsboston.com

▶와추셋 스키장(Wachusett Mountain Ski Area)

와추셋 스키장은 유일하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보스톤 인접한 스키장 중 가장 넓다. 데일리 패스는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47~63까지 다르다. 겨울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즌패스는 골드, 실버, 브론즈 등으로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적절한 이용권을 끊으면 된다. 골드 패스는 \$649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주말 낮 시간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버와 브론즈 패스는 각각 \$429, \$369다.

499 Mountain Road, Princeton, MA 01541

978-464-2300
www.wachusett.com



▶지미니 피크 마운틴 리조트(Jiminy Peak Mountain Resort)

버크셔 마운틴(Berkshire Mountains)에 위치한 지미니 피크 리조트는 45개에 달하는 트레일을 자랑하는 남부 뉴잉글랜드 최대의 스키 리조트다. 리프트도 9개나 구비되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스키, 스노우보드, 하이킹, 자전거 타기, 암벽 등반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개장 시기는 현재 팅스기빙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일기예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즌패스는 일반인 언리미티드 가격이 \$935이며 1일 이용권은 \$69이다.

37 Corey Road, Hancock, MA 01237
800-882-8859
<http://www.jiminypeak.com/>



▶팻스 피크(Pats Peak)

뉴햄프셔에 위치한 팻스 피크는 12월 6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개장한다. 개장 시간은 시기별로 주중과 주말이 다르니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갈 것을 권장한다. 언리미티드 시즌 패스는 \$529이다. 특히 대학생은 학생증을 제출하면 \$199에 시즌 패스를 끊어 굉장히 저렴하게 올 겨울 스키를 즐길 수 있겠다.

686 Flanders Rd, Henniker, NH 03242
603-428-3245

<http://www.patspeak.com>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최 씨 가정, 한인 모금 전달에 고마움 표해

건힌 성금, 도요타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해결
치료 중 위출혈 발생 이어
21일 본격적 항암치료 시작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 김하동 씨가 최형철 씨 가족을 위해 직접 제작한 순금 액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모금의 지폐 한 장, 동전 한 닢에서 도움을 주신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이 느껴지고 모금이 걷히는 장면이 생생히 그려지는 듯해서 이들은 운 것 같네요.”

취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형철 씨의 부인 최혜연 씨의 말이다. 17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최혜연 씨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에 그저 놀랍고 고맙다는 말뿐이었다.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 김하동 씨는 지난 12일 수요일 보스톤 지역 한인들이 기금마련 골프대회 및 만찬으로 모은 성금 \$4,460과 특별 제작한 순금 하트 모양 액자를 최 씨 가정에게 전달했다. 이에 부인 최혜연 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랐다”며 “모금 행사를 추진해준 김 씨와 한인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모인 성금은 현재 진행중인 도요타 외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최 씨는 밝혔다. 증거와 자료는 충분하지만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 재판에서 늘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최 씨는 “이전에는 남편(최형철 씨)이 소송 관련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12월 12일 열리는 청문회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 최 씨는 “재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남편의 건강이 가장 큰 근심이자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최형철 씨에 대해 “물 한잔조차 직접 가져다 마실 수 없는 나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헌신적인 아버지였다”며 “차라리 삶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최형철 씨는 매스 제너럴 호스피털(MGH)에서 가벼운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위출혈이 발생해 지난주 며칠 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한다. 21일 금요일부터 최 씨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부인 최혜연 씨에 따르면 다행히 최 씨는 항암 치료에 따른 심각한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은 없다고 한다. 담당 의사의 “가벼운 항암 치료 당시 머리도 많이 빠지지 않고 식욕 부진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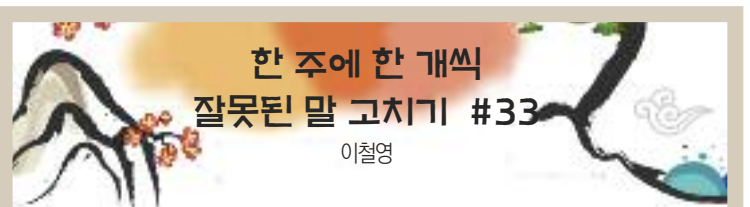
되더라도 큰 거부반응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연 씨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남편이 오히려 불평 한마디 없이 예전과 한결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더 가슴 아프다고 한다. 게다가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엄마, 취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아빠를 지켜야 하는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겨낼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최형철 씨 가정을 위한 모금을 위해 보스톤의 다양한 한인 단체가 힘을 합치고 있다. 북부보스톤한국학교 바자회, 서울대 동문회 기금조성 행사 등이 기획, 진행되고 있다.

모금에 대한 문의는 김하동 씨(978-884-2194)에게 하거나 최형철 씨 주소(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rville, MA 02145)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소데나시(X) -> 민소매(O) 가다마이(X) -> 양복(O)

아직까지 '소데나시(そでなし)'라는 말을 쓴다면 "쓰매끼리, 아까 징끼, 다마네기, 요지" 같은 말을 쓰는 느낌이겠죠?

마찬가지로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한 때 양복 또는 양복 자켓을 가리키는 말로 “가다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은 영어의 'single' 을 가리키는 일본어 '가타마에(片前, かたまえ)'에서 온 말로, 더블스

타일의 양복과 구별해 싱글 스타일의 양복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가다마이”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양복'이라고 해야 합니다. (가끔 상의만을 가리켜 이 말을 쓴 경우엔 차라리 '저고리', 양복 겉옷의 원래 뜻인 '자켓'이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이 두 표현은 이미 많이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톤중앙교회 추수감사절 찬양집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벨몬트에 위치한 보스톤중앙교회(담임목사 송평구)는 오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 찬양집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북미 열두 개의 도시에서 사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찬양팀 트루 워십퍼 12(True Worshiper 12, 목사 추길호)가 초청된다.

“세계에 흩어진 한인 이민 교회의 예배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역해 오고 있다”는 찬양팀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예배자들이 열 두 지파와 같이 온 민족과 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두 도시의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관련 문의는 보스톤 중앙교회(617-230-5004 혹은 bostoncentralchurch.org)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연말파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오는 12월 12일 금요일 송구영신의 밤 행사를 연다. 이 회장은 “한 해를 되돌아 보며 더욱 발전하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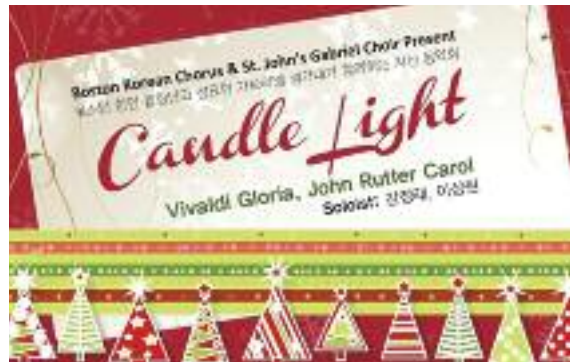
앞날을 기약하는 이날 행사에 로드아일랜드 지역 한인뿐 아니라 뉴잉글랜드의 모든 한인들이 함께 참석해 즐겁고 유쾌한 저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연말 총회와 함께 열리며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과 저녁 만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입장 티켓은 \$35이며 메뉴 선택을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행사 문의는 401-451-8518 혹은 info@rikorean.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나이트 오브 컬럼버스 (Knight of Columbus) 1047 Park Ave #3, Cranston, RI 0291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인합창단 캔들라이트 음악회 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합창단(지휘 박진욱)은 오는 12월 7일 일요일 성요한교회(담임 목사 조상연) 가브리엘 성가대와 함께 성탄음악회 ‘캔들라이트(Candle Light)’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강정래와 소프라노 이상원을 비롯한 성악가들의 솔로와 보스톤한인합창단과 가브리엘 성가대의 비발디 글로리아(Vivaldi, Gloria)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수인 단장은 “이번 음악회는 북한 외진 곳의 산모, 어린이, 신생아를 직접 찾아가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을 후원하는 자선음악회로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성탄 절기의 음악회로 기획되었다”며 “관객과 함께 캐를 싱어롱(sing along)을 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크리스마스를 맞은 포근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스톤 한인합창단은 그동안 음악회를 통해 탈북난민 돕기, 아프리카 기아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해왔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 입장이지만 \$10의 자선금은 전액 유진벨 재단으로 보내진다. 문의는 다음 이메일(sooih-nee@comcast.net)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12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성요한 연합감리교회 (2600 Mas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12월 7일 성요한교회에서 열리는 '캔들라이트' 성탄음악회

한미노인회 연말행사 공지: 12월, 1월 사랑방 정기모임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메드포드 소재 청기사에서 보스톤 지역 80세 이상 회원을 초청해 점심 만찬을 갖는다. 이어 12월 3일 국제선 주최의 효도 잔치가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57 Peters St, N Andover, MA 01845)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한미노인회 회원과 지역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행사 문의는 한미노인회(978-994-5490 혹은 978-902-8305)에게 하면 된다. 한편, 한미노인회는 12월과 1월 사랑방 정기모임을 갖지 않는다.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메드포드 소재 청기사에서 보스톤 지역 80세 이상 회원을 초청해 점심 만찬을 갖는다. 이어 12월 3일 국제선 주최의 효도 잔치가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57 Peters St, N Andover, MA 01845)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한미노인회 회원과 지역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행사 문의는 한미노인회(978-994-5490 혹은 978-902-8305)에게 하면 된다. 한편, 한미노인회는 12월과 1월 사랑방 정기모임을 갖지 않는다.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메드포드 소재 청기사에서 보스톤 지역 80세 이상 회원을 초청해 점심 만찬을 갖는다. 이어 12월 3일 국제선 주최의 효도 잔치가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57 Peters St, N Andover, MA 01845)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전 11시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한미노인회 회원과 지역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행사 문의는 한미노인회(978-994-5490 혹은 978-902-8305)에게 하면 된다. 한편, 한미노인회는 12월과 1월 사랑방 정기모임을 갖지 않는다.

이화여고 동창회 뜻 깊은 시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8일 토요일 보스톤 이화여고 동창회(회장 김혜경)가 열려 동문 간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열두 명의 동문들이 모인 이화여고 정기 동창회는 박순혜 동문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는 이금주 동문의 사역활동 보고를 듣고 재봉틀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동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계속 후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총동창회' 참석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지기로 하

였으며, 젊은 세대 동문들이 동창 모임에 더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보스톤 이화여고 동창회 모임은 1996년에 시작되었으며, 뉴잉글랜드 근교에는 40여명의 동창이 있다. 매년 두 번 열리는 동창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모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동문회 모임은 내년 4월 11일 김유경 동문 자택에서 가질 예정이다. 동창회에 관한 문의는 김혜경 회장 (508-965-7632, hk-weir@gmail.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8일 열린 이화여고 동창회에 열두 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18일 보스톤 외곽 495번 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스톤 외곽 495번 도로 과속단속

2주 전부터 전자 보드
통해 차량의 속도 파악
과속지역 파악되면
경찰 집중 배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경찰과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18일 보스톤 외곽에 위치한 495번 도로에서 차량의 과속이 빈번한 곳을 파악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발표 2주전부터 이미 고속도로 안전구간 프로그램(The Highway Safety Corridor Program)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495번 도로 베를린에서 챔스포드에 이르는 구

간에 8개의 전자 메시지 보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통과 차량의 속도를 파악하는 벤처 프로그램이다. 파악된 속도는 경찰에 전달되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과속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해 순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주 경찰 대변인 데이비드 프로코피오는 “최근들어 495도로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또한 속도 또한 증가한 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 결과 치명적인 대형사고의 발생빈도도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495에서의 빈번한 사고 발생율은 매사추세츠 교통부가 더 차량 통행이 많은 95번 도로에 앞서 495를 선택하게 된 이유다. 495에는 점차 출퇴근 차량이 증가하면서 최초 설계되었던 한 도로를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과속

이 끊이지 않아 가장 위험한 도로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에 메시지 보드가 설치될 타운은 챔스포드, 웨스트포드, 리틀턴, 박스보로, 볼튼, 베를린 등의 타운이다.

경찰은 이번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하고 2주 후에야 발표한 것은 운전자들이 의식하기 전에 일상적인 속도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수거한 자료를 통해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서 가장 과속이 심한 것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전자 보드를 추후 다른 곳으로 옮겨 속도를 측정하고 경찰이 배치되었을 때의 속도 변화 추이도 함께 측정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연말 쇼핑시즌 조심스런 전망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미 전국적 쇼핑 전망치보다는 밀돌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소매상 연합은 올 연말 쇼핑시즌도 2010년 이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소매상 연합은 올해 11월 12월 두달간 매출이 3.9% 오른 1천5백40억달러(\$15.4 billion)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미소매상연합이 예측한 4.1% 증가를 조금 하회하는 수치다. 올해 예측은 그러나 3.3%의 매출이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다.

뉴욕소재 커트 셸몬사의 경제분석가 메디슨 라일리는 “아직까지 4-5년 전에 겪었던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많이 좋아졌지만 2008년 이전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주요 마켓들은 도어버스터와 유사한 할인정책을 좀 더 일찍 제공하는 등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스톤 소재 베인 캐피탈의 트리 샤페트릭은 올 시즌 낮은 개스값과 실업률의 영향으로 매출이 좀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9월 발매된 아이폰 6 외에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물품들이 시장이 많지 않다는 점이 쇼핑의 장애 요인이다.

뱅크라이트닷컴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하나의 이유라고. 이 조사에 따르면 1천명 중에 단지 28퍼센트만이 상점에서 쇼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미 경제가 2008년 이전 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올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도 그리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매사추세츠 소매 업체들은 예측하고 있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차터 스쿨 정학 처벌 공립보다 많아

인권 및 경제 정의 변호사 위원회 보고서

대부분의 정학은 하루, 사소한 교칙 위반 때문
 잦은 정학은
 학업 저하로 이어질 우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공립 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차터 스쿨이 기존 학교들에 비해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터 스쿨이 정학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복장 위반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사소한 교칙 위반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 18일 법조계 인권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10개 학교 시스템 중에서 차터 스쿨이 정학 제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터 스쿨은 보스턴 지역에 대부분 밀집해 있다.

보스턴에 위치한 락스버리 프리퍼레토리 차터 스쿨(Roxbury Preparatory Charter School)은 학생들에게 정학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였다. 이 학교는 2012-2013 학년도에 재학생의 60%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역시 보스턴에 있는 시티 온 어 힐 차터 스쿨(City on a Hill Charter School)이 41%로 2위, 지금은 폐교한 스피릿 오브 낄리지 차터 스쿨(Spirit of Knowledge



락스버리 프렙 차터 스쿨에서는 2012-13학년에 재학생들의 60%가 정학을 받았다

Charter School)이 27%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매튜 크레거는 “차터 스쿨은 높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학 처분이 이렇게 높은 것은 차터 스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터 스쿨 관계자들은 정학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학 조치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보통 하루만 학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칙과 교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락스버리 프렙 교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월 오스틴은 “우리 학교는 수년 동안 학생과 그 가족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로 여겨져 왔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토론은 수년 전부터 매사추세츠 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많은 보고서들은 반복적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업에서도 뒤떨어지고 결국 자퇴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불법 이민자 감소

2012년 3만명 감소한 15만명 거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불법 이민자가 감소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외에도 미국 내 14개 주에서 불법 이민자가 감소하였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내 불법 이민자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뉴욕 주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들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불법 이민자 수는 2009년에 약 18만명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약 3만명이 감소하여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엘살바도르, 브라질, 인도 출신이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주 외에 불법 이민자 수가 감소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네바다, 오레곤 주다. 또한 뉴잉글랜드 주에서는 메인과 버몬트에 5천명 미만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어 다른 주에 비해 불법 이민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2014
 홍삼정 제품
 최대 혜택!

이벤트 1



홍삼정 240g 구입 시마다
50g 홍삼정 무료증정

\$47 Value

연말사는 **BIG** 이벤트

이벤트 2



홍삼 추출액
 Pure Extract

10% OFF

고품질 6년근 홍삼을 115년의 노하우로 최고의 설비에서 위생적으로 달여 만든 제품입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크레프트 家, 보스톤 프로축구 구장 건설 다시 추진

사우스 보스톤
프론티지 로드 인근
시 소유 견인 주차장
2020년 보스톤 올림픽
메인 경기장 바로 인근



질레트 구장에서 열리는 레볼루션 경기 모습. 구장이 커 많은 자리가 비어 보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을 대표하는 축구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홈 축구구장을 보스톤에 건설하려는 계획이 조용히 진행 중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20일 프로 풋볼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로버트 크레프트 가족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크레프트가 축구구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크레프트는 과거 서머빌 또는 리비에어 구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현재 크레프트가 물색중인 곳은 사우스 보스톤의 시 견인차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프론티지 로드 옆에 있는 부지다. 이곳은 사우스 역과도 가깝고 90번 및 93번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다.

크레프트 가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차례 주정부 및 시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프론티지 로드의 축구구장 건설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프트가 대변인은 17일 “우리는 현재 레볼루션 팀이 사용할 축구장이 보스톤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있는 경우 밝히도록

하겠다” 고만 답했다.

크레프트가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보스톤 인근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장을 물색했었고 이후 근년에는 축구구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패트리어츠의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레볼루션은 구장이 보스톤과는 너무 멀고 너무 커서 축구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상적인 축구구장의 사이즈는 1만8천에서 2만2천정도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레볼루션 단장은 밝혔다.

현재 크레프트가 제안한 프론티지 구장 부지는 2024년 보스톤 하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의 잠정 후보지와 거의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올림픽 주경기장 부지는 프론티지 로드 바로 남쪽인 웨트 서클에 있다.

이에 따라 일부는 크레프트의 제안

이 올림픽 주 경기장 건설 계획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두 경기장이 들어서기에 충분한 크기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기도 하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대변인은 어떤 건설 제안이든 입찰 과정을 거치고 정부기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크레프트 가에서 또 다시 축구구장 건설을 제안한 것은 미국내에서 점차 축구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팀이 16강에 진출하며 기록적인 TV시청률을 올렸으며 미 프로축구리그(MLS)는 지난 5월 ESPN, 파스, 그리고 Univision과 7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방송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도 16강 미국 대표팀의 스타였던 저메인 존스를 4

포브스, 보스톤 미국내 가장 스마트한 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이 피츠버그, 산호세 와이오밍 미시간을 제치고 미국내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선정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내 380대 도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스톤-케임브리지-뉴튼 매트 로 지역은 2000년 이래 대졸자 비율이 32.2% 증가해 정상에 올랐다 보스톤 매트 로 지역의 대졸이상 비율은 44.8%로 미국내에서 4번째로 높은 대졸자 비율이었다.

이 잡지는 세가지 기준을 토대

로 스마트한 도시를 평가했다. 첫째는 대졸학위 취득자의 비율이며 둘째는 2000년 이래 대졸학위 취득자의 증가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학력자들의 비율을 고려했다.

포브스가 선정한 스마트한 상위권 도시들은 대부분은 많은 대학이 집중해 있거나 과거 산업화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한 곳이었다. 두번째로 스마트한 도시는 피츠버그였고, 실리콘 벨리와의 산호세는 3위를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백30만달러에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며 이번 주말 준결승전을 치른다. 올 시즌 6년 만에 최고인 평균 16,681관객이 경기를 관람했다.

메이저리그 축구팬들의 40%가 34세 이하인 반면 프로야구의 24%만이 34세 이하의 젊은 팬들이다. 따라서 보스톤 시 인근의 축구구장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축구팬들을 끌어 모아

축구리그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크레프트가의 축구구장 건설추진은 아직도 많은 벽을 넘어야 한다. 주민들의 동의 시와 주당국의 허가, 건축비 등이 해결된 후라야 한다. 서머빌, 리비에어 지역 축구구장 건설은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ACTON** **NATICK**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행정명령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화당, 오바마 행정명령에 끝까지 싸우겠다 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백만여명의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20일 발표키로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비디오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 정치권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와 함께 양당의 포괄적인 법안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합법적인 권한으로 이민 시스템이 더욱 더 잘 작동되게 하려 한다"고 밝혀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자란 젊은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범위한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갔으나 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언론은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오바마가 발표하게 될 이민개혁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후 다음날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한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네바다주는 불법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여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중간선거에서 영향을 받을 의원들을 고려해 이 결정을 미뤘었다. 그러나 이같은 연기는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큰 도

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발표 강행은 독단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 '저격수' 중 한명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행동이 아닌 '왕(monarch)'의 행동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부 극라테 하원 법사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행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도 "헌법 아래서는 어떤 대통령도 어떠한 결론 없이 독립적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내리는 것이 역대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며 "아이젠 하워, 케네디, 레이건 등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취했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공화당 주지사들 이민개혁안에 '부글부글'...대선후보는 침묵

"운전면허증 줘야 하나"... 행정적 난제로 골머리

텍사스 주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하면 각 주(州)에서는 이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최대 500만 명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 권한을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이제 공은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이민개혁안에 격렬히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정치적 반대에 더해 이 같은 행정적 '골칫거리'를 안게 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0일 전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현재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31명으로 늘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3일간의 일정으로 플로리다 보카 레이턴에서 개막된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회의에서 고스란히 표출됐다.

몇몇 주지사는 강도높게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민개혁안의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스코트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것은 불법"이라며 "법정으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릭 페리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폴 르페이지 메인 주지사도 자메이카 출신 아들을 입양한 후 취업허가증을 받는데 11년 가까이 걸렸다는 "왜 그것을 내일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싸울 것이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잠룡군에 올라있는 공화당 소속 차기 대선주자들은 말을 아껴 대조를 이뤘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이민개혁안의 수혜 계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온정과 공평으로 이들을 대할 것"이라며 원론으로 받아넘겼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겠다는 말로 비껴나갔다.

일부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개혁안에 수반되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의회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quintet@yna.co.kr

유럽, 미국, 일본, 한국차 서비스

States Inspection
태양자동차
Repair & Body

고객님은 차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고객님의 꼭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태양자동차에 있습니다.

(T)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 781-827-09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j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서부 뉴욕 기록적 폭설로 최소 8명 사망

- 호수 효과 폭설 6피트
- 2일 적설량 1년에 버금



뉴욕지역에 호수효과 폭설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언됐다. 뉴햄프셔와 미시간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뉴욕주를 비롯 동북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밝혔다.

이리주 카운티 행정부의 마크 폴론카츠는 "뉴욕주 버팔로의 남동부 지역의 경우 최근 이틀간 내린 적설량이 1년 적설량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적설량은 152cm 넘기도 했다.

기상청은 "전날 50개주 전역의 기온이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졌다"며 "오는 주말까지 평균 보다 추운 기온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론카츠는 "주 전체에 비상사태 및 여행금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외부 행동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11월 한파와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속출했다.

피터 앤더슨 버팔로 카운티 대변인

은 "버팔로 나이라가라 국제공항이 할 주로는 오픈된 상태였으나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할 수 없어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교통당국은 험비 트럭을 지원해 폭설에 갇힌 승용차 속 운전자를 구출하고 사람들이 보호시설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여자 농구팀은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혀있다 24시간 이후에나 구출되기도 했으며 뉴욕의 밴드 '인터폴'은 버팔로에 발이 묶이면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하려던 콘서트를 취소하

도 했다. 게일 버스타인 에리카운티 보건국장은 "공중 보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폭설은 살인적이었다"며 "이 지역에서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제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뉴햄프셔와 미시간주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번 폭설로 인한 사망자수는 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ejjung@news1.kr

주택경기 낙관론 확산...11월 주택시장지수 급반등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건설업자들의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주택시장지수가 9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반등했다.

18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협회(NAHB)는 이날 11월 주택시장지수가 5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다. 이는 예상치인 56을 웃돈 것이다. 이로써 지수는 9년래 최고치였던 지난 9월의 59에서 지난달 54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건설업자들이 주택판매 추세를 낙관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달로 5개월 연속 50선을 웃돌았다.

케빈 켈리 NAHB 회장은 "소비자

들의 경기확신이 강해지면서 주택 건설업자들도 경기전망을 낙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노동시장의 강력한 개선세도 지수 반등에 힘을 실어줬지만 임금 상승세가 미약한 게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듯이 주택 시장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enes@news1.kr

연준 위원들, 금리인상 시기 본격 논의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19일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전망 부진 속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성명 문구 표현 방식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양적완화 종료 후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문구의 변경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에 반대함에 따라 지난달 성명서에선 이 문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위원들이 연준의 장기 목표에 대한 성명 문구를 보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미국 경제 전망과 의 사록 내용에 관한 의사소통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한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에도 미국 고용시장의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
위원들 사이에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한동안 밑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폭넓게 존재했다. 또 이러한 견해가 이미 대중들 사이에도 공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지나치게 낮

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연준이 저(低)인플레이션과 싸울 것이라는 점을 공언하는 새로운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일부 위원들은 금융 안정 목표도 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이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

◇ 글로벌 경제 부진 여파는 미국에 제한적일 것

위원들 중 일부는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기 시작되면 시장에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중기적으로 현재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부진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9일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또 0-0.25%인 사실상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며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November 11th Tuesday
January 19th Monday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April 3rd Friday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12:30pm- 1:00pm Lunch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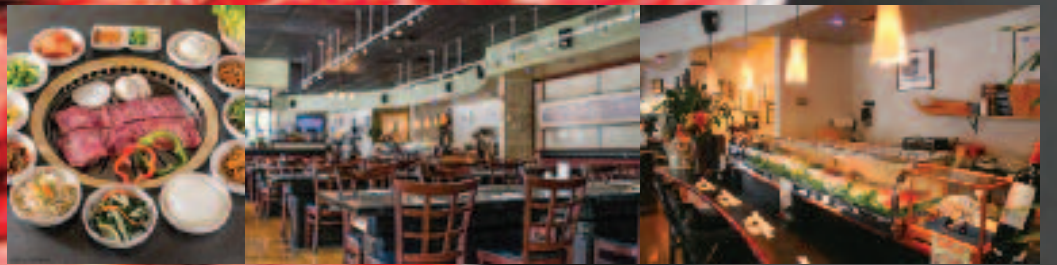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누리과정 예산 합의' 놓고 여야 혼선, 여 간사 사퇴했다 반려

교문위 간사-교육장관 '구두합의' 직후 야 "국고 지원 합의" 발표

(서울=뉴스1) 김현, 김영신, 유기림, 서미선 기자 = 여야가 20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발(發) 합의 주장 직후 여당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주무장관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간의 잠정 합의 내용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 전에 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혼란이 일었다.

여당 내 혼선 양상이 불거지자 잠정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열흘 가까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교문위가 쉽사리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문위 소관 예산은 상임위 의결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및 교문위 여야 간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문위 예산심사 파행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황우여 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회동을 가졌다.

양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 예산(5000여억원)과 관련, 이를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정해 예결위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 지원액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동시키기로 구두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의견 일부를 받아들여 국비 지원 내지 국제 발행을 주장해오던 야당이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고, 예결위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남기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의총에서 합의 사실을 보고하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내용을 밝혔다.

그러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국회 정론관을 찾아 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을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사전에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면서 "우리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당 일각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구두합의 내용을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은 교문위 여야 간사 간 구두합의와 관련해 "원내지도부 지시를 존중해서 합의를 하기를 우리당 간사에 요구했다"며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 의원을 겨냥했다.

이후 신 의원 역시 정론관을 찾아 "구두합의 과정에서 당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어떤 협의나 절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행 중인 교문위를 이런 식으로라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급히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각부로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황우여 장관이 이날 야당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면 황우여 장관

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황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교문위가 오래 파행하니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자고 생각한 것 아닌가 짐작한다"며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 크게 꼬였다"고 했다.

교문위 예산심사가 이날도 재개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교문위 소관 예산안은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NOV. 21, 2014 - NOV. 27,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THANKSGIVING ALSO MEANS THANKS to the SAVINGS

Wishing you a great Thanksgiving from our family to yours.
 이번 추수감사절은 H마트에서 준비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전통은 H마트에서 시작됩니다.



KADOYA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FRESH 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10.99**
 찜갈비 lb.



HAIOREUM Yellow Croaker **\$12.99**
 해오름 굴비 2.86 lbs.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Singo Pear Box 신고배 박스 **\$26.99**
 box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up lb. **\$7.99**
 FROZEN

중가집
 사은품 증정 이벤트
BUY CHONGGA & KEEP IT FRESH FOR FREE!
 NOV. 22 - NOV. 23, 2014 at Hmart Burlington
FREE GIFT
 PURCHASE CHONGGA'S 5.5 LBS. MAT OR POGGI KIMCHI & TAKE HOME A FREE 4L KIMCHI CONTAINER.
 중가집 맛김치 또는 포기김치 5.5 lbs. 구매시, 4L 용량 김치통 무료증정!

Harim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이제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FREE TASTING EVENT: 11/21 - 11/23

NEW Haru Haru Rice RICE RICE BABY!
 하루하루 마이쌀 신제품 출시!
 Try all our new varieties. All with the taste and quality you'll love.
 [현미 / 찰쌀 / 현미찰쌀 / 현미반 현미찰쌀반]
 Also try our new small size HARU HARU Milled Rice (4.4 lbs.)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USDA ORGANIC
Organic Enoki Mushroom 유기농 팽이버섯 5.3oz./pkg. **2\$4**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Radish 무 박스 box **\$12.99**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9.99**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FRESH Whole Chicken 통닭 lb. **\$1.79**

FRESH Beef Heel Meat 소 사태 lb. **\$6.99**
 U.S.D.A. CHOICE

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1.4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Scord Cod 생대구 lb. **\$3.99**

FROZEN **CHAMPMAR** Head-On White Shrimp 머리 새우 2 lbs./pkg. **\$13.99**

FROZEN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8oz./pkg. **\$6.99**

FROZEN Frozen Monkfish Cut 손질된 아귀 1 lb./pkg. **\$3.99**

No. 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

CJ 햇반 CJ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ox **\$15.99**

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Hot/Mild 4.2oz. x 5ea./pkg. **\$2.99**

SAMYANG Gan Jjampong/Fried Spicy Chicken Bowl Noodle 삼양 간짜뽕/불닭 볶음면 큰 사발면 3-3.7oz. **\$1.99**

K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0.71oz. x 10ea./box **\$9.99**

주말시식쿠폰 **HAIOREUM** K Dumplings 해오름 손끝 만두 All Varieties/1.57-1.59 lbs. **\$4.99**

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7.99**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선인장 꿀가루 1 lb. **2\$6**
 ea./for

ESBENSHEDE FARMS Large Grade A Eggs 에스벤셰이드 팜 라지 달걀 13oz./pkg. **2\$4**
 ea./for

Microfiber Sitting Cushion 착번 극세사 방석 All Varieties/ea. **\$5.99**
 PRODUCT OF KOREA

NOBLE Cotton Pad 노블 면패드 Queen/All Colors/ea. **\$22.99**
 PRODUCT OF KOREA

NOBLE Cotton Pad 노블 면패드 Single/All Colors/ea. **\$19.99**
 PRODUCT OF KOREA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보온병 SF-CC15XA/1.5L/ea. **\$29.99**

여야 "달라진 게 없고 미덥지 않다", 첫 보고 국민안전처 질타

신설 국민안전처, 국회 국민안전특위에 첫 업무보고에서 질책 이어져 국민안전처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뉴스1) 박상희, 유기림 기자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첫 업무보고에서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야는 국민안전처가 각종 재난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조직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민안전처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전의 자료와 다른 것이 없다"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덥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는데 마련이 된 건지의 문이 든다"며 "재난 현장을 관리하는 내용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는데 민방위 훈련조직 만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치가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 못했다"며 "지적한 응급의료 체계와 작동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안전처가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바로 이런 것이 군대식 발상으로 장관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는거냐"고 따졌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이 희생된 300명에게 있는 것이냐"며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민안전처의 운영을 시작하냐"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차관은 "국가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법령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법령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 의식도 제고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전관련 규제를 더 철저히 지키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478곳이 불이 나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며 "진입로의 도로가

협소하거나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이라는 이런 것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단속을 철저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선체를 인양하는 것도 구조작업의 일환인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며 "돈이 많이 드니까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수부에서 국내외 여러 제안을 받았고 제안서 검토 결과 약 13개월

, 9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추 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및 세부실천 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부실천 계획에는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뿐만 아니라 관행과 적폐에 대한 해소 방안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

전병헌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군출신, 안보와 안전 혼돈 우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세월호 사고'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출신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안전 문제에까지 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장관(박인용 전 합참의장)은 별 4개, 차관(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합참출신)은 별 3개 출신인데 이른바 복두철성 인사는 국민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군출신 인사에 기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군 출신은 오히려 명령 체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탄력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탄력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가기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킨다"며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너무 지나쳤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사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육상경찰 출신이 해양 경찰 임무를 맡게



되는 관행을 이번에도 깨뜨리지 못했다"며 "배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않는 인사가 해양 안전을 어느 정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선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다"며 "잘 쓰면 명검이 될 것이고 잘못 쓰면 박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분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엄청난 비리 복마전"이라며 "비리의 복마전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대통령 신임을 받는 분이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못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y1@news1.kr

청 국민안전처 인사, 여 "실무형" vs 야 "군인 일색"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비판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

(서울=뉴스1) 여태경, 유기림 기자 = 청와대의 국민안전처 장관 등 인사에 대해 여당은 18일 "실무형 인사"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대한민국이 군인 일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강화와 공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을 높인 실무형 인사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인 박인용 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과 아덴만 여명작전을 기획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기용을 포함한 재난안전부서 인선은 제2의 세월호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에 민간기업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공직인사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마인드를 접목시켜 강도 높은 인사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 발표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



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해양경비를 맡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대목에서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과 관료조직의 인사시스템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르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공직 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도 의문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장에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된 점은 정실인사로 국민에게 호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haru@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여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두고 공방 지속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여야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을 발족시키고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전체의 40%)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자리,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저출산 극복 과제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정부는 매해 신혼부부 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 3만호 지원 등을 통해 매년 6만 4000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 3만호 준공으로 연 7만 가구를 지원할 전망"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4년이 소요되며 만약 국민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 877억원, 용자 1조 4503억원, LH 부담 1조 878억원 등 총 3조 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2432억원은 1년 분 예산중에서도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2400억원의 예산으로 3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풀려진 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 6000억원이 있으므로 여기서 3조원을 가져오면 된다는 주장도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최근 10월 30일 부동산대책으로 여유자금 3조원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여유자금은 주택기금의 최소 필요수준인 약 12조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 역시 같은 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 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맞섰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은 2000여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 헛발질한 새누리당은 정책 무능을 인정하고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9차례의 부동산 대책



을 내놓았으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65%씩 하락하고 있어 매년 11만 7000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가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

며 "새정치연합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irin@news1.kr

박승춘 또, 여 상임위원장 면전에 서류 내던져

보훈처 예산 삭감에 반발 여 의원도 "안하무인"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정부위원회 회의를 수 차례 파행으로 몰고 갔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보훈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에겐 연성을 높이며 갖고 있던 서류를 내던진 것.

예산소위에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중 3억원을 삭감하고,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을 기리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우기로 한 기념비 사업 예산 3억원을 삭감했다.

나라사랑교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편향적인 교육과 대선 개입 논란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사업이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사업은 이미 미국에 3개

의 기념비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같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정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박 처장은 서류를 내던지는 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정무위원장으로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한 여당 소속 정무위원이 박 처장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여야 정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박 처장은 정무위원장실에서 본인의 언행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박 처장은 19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원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대선 개입 논란 등으로 정무위 회의를 수 차례 파행으로 몰고 갔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 등 내용을 떠나 박 처장의 태도가 문제를 키우면서 여야 정무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ydkim@news1.kr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강패냐" VS "양아치 같은 소리", 예산심사서 욕설공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예산조정소위 이틀째인 17일 오전 회의에서는 여야 소위 위원들간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야 소위 위원들의 설전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다 불거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논의하던 중 예산안과 기금을 함께 논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 기금의 증액, 감액을 논의하면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원래 예산과 기금은 같이 논의를 해왔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면서 저런 식으로 한다. 편법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소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그만하세요"라고 이 의원의 발언을 막아섰고, 이를 듣고 있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가만 있어 건방지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강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고, 강 의원은 "저 XX 강패야. 어디서 쳐 입다. 예의가 없어. 상식이 없는 친구야? 조폭이야? 저런 양아치 같은..."이라고 험한 말을 내뱉었다.

김 의원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방금 뭐라고 했나. 사과하세요. 예의바르시네요 욕설이나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예산을 맡겨 놓았는데 이런 추태가 무엇인가"라며 중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여야를 떠나 선배 의원한테 이런 대접을 받은 점에 대해 강 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책상 친 것을 사과하면 사과하겠다"고 맞서자 김 의원이 "책상 친 것은 사과한다"고 했고, 강 의원도 "그럼 좋다. 수용하고 나도 사과한다"고 말하면서 연쟁은 일단 끝났다.

이날 기획재정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감액 심사에서도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보류되는 등 기싸움이 가열됐다.

이날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기재부의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55억원)'은 여야 격론 끝에 결국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 흥릉 연구단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야당이 '박근혜 표 예산으로 지목하며 10대 감액 사업으로 꼽은 예산이다.

법사위 소관 심사에서는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지원비(5000만원)가 야당의 요구로 보류됐다. 특수활동지원비는 야당이 용처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예산이다.

예산조정소위가 이처럼 가열된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쟁식 공세를 자제하고 국민적 기대에 맞는 예산 심사에 노력해 달라"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국회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과 자원의료 사업 등에 대한 대공적인 삭감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대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ydkim@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최경환 경제정책 유지하면 장기 침체 가능성"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
상대 경실련 설문결과

(서울=뉴스1) 박웅진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거품경제 붕괴 후 20여년 동안 이어진 장기 경제침체)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 상대 지난 10~14일 실시)에 따르면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41명(34.2%)이 '매우 높음', 62명(51.7%)이 '높음', 13명(10.85%)이 '낮음', 4명(3.3%)이 '매우 낮음' 등이라고 응답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선택)로는 '경제민주화 추진'(50명·20.8%), '양질의 일자리 창출'(43명·17.9%), '공공부문 개혁'(42명·17.5%), '조세형평성 강화'(33명·13.8%),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25명·10.4%), '영세자영업

자 지원 등 서민층 지원 확대'(14명·5.8%), '전·월세 제도 개선 등 서민주거안정 강화'(14명·5.8%), '복지제도 강화 및 지출 확대'(9명·3.8%)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56명·46.7%),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42명·35.0%), '가계부채 심화'(6명·5.0%), '저출산·고령화'(10명·8.3%),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4명·3.3%) 등이 있다고 봤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92명(76.7%)이 부적절하다고 봤는데 문제점으로는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71명·59.2%), '부동산 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25명·20.8%),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14명·11.7%),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전월세 문제)'(4명·3.3%), '관공·의료 등 부분별한 규제완화'(3명·2.5%) 등을 꼽았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2개 선택)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금융(LTV·DTI) 규제완화'(74명·30.8%), '41조원의 재정보강 및 적자 예산안 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2105년도 예산쟁점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71명·29.6%),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계'(30명·12.5%),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26명·10.8%),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26명·10.8%), '관공·

의료 등 서비스산업활성화'(5명·2.1%)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같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히 수렴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

다"며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조세형평성 제고, 서민층 이하 지원 강화, 규제완화 철폐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허니버터칩, 인기 폭발 중고사이트까지 등장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해태제과가 지난 8월 출시한 '허니버터칩'이 폭발적인 인기로 품귀 현상을 빚어 중고사이트 매물로 등장했다.

19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허니버터칩을 판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봉지당 판매 가격은 2000원부터 편의점 판매가(1500원)의 3배가 넘는 5000원대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처럼 '허니버터칩'이 고가임에도 구매하겠다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쪽지를 달라고 요청한 댓글도 달렸다.

허니버터칩은 최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폭발해 수

요보다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해졌다. 실제로 한 편의점에서는 수급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제품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태 측은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원주 문막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주말에도 '풀가동' 중이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허니버터칩은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돌파했다.

허니버터칩 소식에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인기 많네", "허니버터칩, 얼마나 맛있길래?", "허니버터칩,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장안의 화제 '허니버터칩', 개발자가 밝힌 인기 비결은?

"1천명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93%가 선택"

(서울=뉴스1) 송경화 기자 = 2012년 12월 해태제과에 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됐다. '감자칩 개발 특별팀' 이었다. 오리온의 '포카칩'과 농심켈로그의 '프링글스' 등이 지배하는 감자칩 시장에 도전장을 내기 위해서였다. 해태에도 '생생감자칩'이 있지만 포카칩과 프링글스에 밀려 만년 열세였다. 연간 2000억원의 감자칩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보였지만 여전히 연 7~8%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다.

1년 9개월의 연구끝에 지난 8월 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을 내놨다. 한 마디로 대박이 났다. 광고 한번 하지 않았는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출시 100여일만인 지난 17일까지 허니버터칩은 1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4년차 '해태맨' 인 정명교(52) 해태제과 연구소장에게도 "이렇게 시장에서 빠른 반응을 보인 제품은 처음" 일 정도다. 그는 이번 감자칩 태스크포스팀을 총괄했다. 개발팀과 마케팅팀이 모여 국내 30여종의 감자칩과 전 세계적으로 100여종에 이르는 감자칩을 공수해 먹어봤다. 대부분 짜다. '짠 맛 탈피=새로운 맛 구현'이 목표가 됐다.

"감자칩도 짹짹하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보자고 목표를 세우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MSG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짹짹한 맛과 단 맛, 고소한 맛을 동시에 내느라 개발 과정이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단맛에는 꿀을, 고소한 맛에는 고메버터가 사용됐다.

"일반적으로 단맛을 낼 땐 설탕을 사용하거나 포도당이나 올리고당을 쓰는데 강하게 올라오는 단맛보다는 부드럽게 올라오는 맛을 구현하기 위해 재료를 찾다보니 아카시아 벌꿀이 그 맛이었습니다. 고소한 맛도 내야 하는데, 버터를 써봤으나 만족할 만한 맛이 나오지 않았어요. 28번째 배합을 했는데도 원하는 맛이 안 나오던 터에 29번째에 고메버터를 넣어봤습니다. 프랑수아산으로 일반 버터와 달리 발효한 버터거든요. 29번째 샘플을 맛볼 때 다른 고소한 맛보다 풍부하게 올라오는 맛이 났습니다. '이거다!' 했습니다. 불과 지난 5월입니다."

샘플 제품을 만들어 지난 6월 해태제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 통상 100~200명을 불러 7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면 괜찮은 반응으로 보는데, 허니버터칩은 1000명을 불렀다고 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경쟁사 감자칩들과 허니버터칩 중 맛 있는 것을 고르게 했는데 93%가 허니버터칩을 선택했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출시 뒤 시장 반응도 비슷했다. 9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개발자 정명교 연구소장

월 편의점 GS25와 CU의 감자칩 매출 순위에서 허니버터칩이 2위에 오르더니 10월 1위가 됐다. 그 전까지 감자칩 매출 순위에서 10위 안에도 못 들었던 해태제과였다.

"마케팅을 따로 할 틈도 없었습니다. 통상 소비자가 한 번 과자를 사먹은 뒤에 재구매를 하는 회전 속도를 3개월로 보는데 출시 한달도 안 돼 SNS를 통해 열풍이 부는 걸 봤습니다. 원주의 문막 공장을 처음에는 1교대로 운영하다가 2교대로, 지금은 24시간 풀가동인 3교대로 바꿨습니다."

1991년 해태제과 '껌 개발팀'으로 입사한 정 소장은 국내 처음으로 국제치아보호협회(TSI) 마크 인증을 받은 '텐티큐'를 1994년 출시하는 등 해태제과에서 많은 새 제품을 만들어 왔다. 그의 다음 목표는 '나트륨 낮춘 과자'를 늘리는 것이다.

freehwa@hani.co.kr

11月

AMORE EVENT



슈퍼바이탈 크림(50ml/\$100) 구매시
슈퍼바이탈 5종 샘플 키트를 증정합니다



\$90 이상 구매시 해피바스 내추럴 바디 스크럽(200ml)을 증정합니다. 바이오 에센스 (\$60) 구매시에도 증정



에어쿠션® (15g * 2 / \$40) 구매고객님께 스템셀 3종 트라이얼 키트(\$30 value)를 증정합니다



\$190 이상 구매시 해피바스 내추럴 바디 스크럽(200ml) + 설화수 베이직 5종 키트와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11/1~11/30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Beef Soup at S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회: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소납은 한국에서 온 무초(無超)라고 합니다. 15년간 참선 수행을 하고 이제는 붓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외국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 현지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포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보스톤에서 한국 불교(선불교)를 알리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선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참선 법회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조그만 공간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정집의 마루나 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같이 법담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선 수행을 하며, 좋은 도반의 인연을 만들고, 자등명·법등명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연이 되면 한국 불자님들과 미국 불자님들과 함께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이력**
출가전: 동국대(경주) 철학과 학사
동국대(서울) 불교학과 석사
제2기 국선도 생활 강사
출가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 선원 졸업
송광사, 동화사, 법주사, 월정사 등 10년간 선원에서 수행, 산속 토굴에서 5년간 개인 수행

연락처: mucho007009@gmail.com, 010-3560-7009
저는 지금 Cambridge Zen Center (199 Auburn St. 하버드와 MIT중간에 위치)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무초 합장.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NFL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위 4팀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4 NFL 정규시즌이 벌써 6주 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각 팀마다 6 경기를 소화하고 나면 2014 정규시즌이 끝나고 수퍼볼을 향한 플레이오프가 시작된다.

양대 컨퍼런스에서 몇몇 팀들은 정규시즌의 마지막 순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경합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상위 팀 시드 팀들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이런 팀들은 이번이 없는 한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될 것이다.

양대 컨퍼런스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위 4팀에 대해 알아보자.

AFC		DIVISIONAL ROUND		JAN 10-11		NFC	
Lowest Winning Seed From AFC Wild Card Round	Highest Winning Seed From AFC Wild Card Round	Lowest Winning Seed From NFC Wild Card Round	Highest Winning Seed From NFC Wild Card Round				
Patriots (8-2-0) Proj: 1st Seed	Broncos (7-3-0) Proj: 2nd Seed	Cardinals (9-1-0) Proj: 1st Seed	Lions (7-3-0) Proj: 2nd Seed				
AFC		WILD CARD ROUND		JAN 3-4		NFC	
Steelers (7-4-0) Proj: 6th Seed	Chiefs (7-3-0) Proj: 5th Seed	Cowboys (7-3-0) Proj: 6th Seed	Packers (7-3-0) Proj: 5th Seed				
Bengals (5-3-1) Proj: 3rd Seed	Colts (5-4-0) Proj: 4th Seed	Eagles (7-3-0) Proj: 3rd Seed	Falcons (4-6-0) Proj: 4th Seed				

현재까지의 기록으로는 패트리엇스와 카디널스가 양대 리그에서 탑 시드를 얻게 된다

AFC PATRIOTS 8승 2패

1번 시드 AFC 동부지구 1위

패트리엇스는 9월에 2승 2패를 기록하며 불안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특히 치프스와 경기에서 대패를 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어렵다는 전망을 하게 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패배 이후 패트리엇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6 연승을 달리고 있다.

패트리엇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평균 40점 이상을 득점하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베테랑 쿼터백 탐 브래디가 여전히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데럴 레비스를 중심으로 한 패스 수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최

근 3경기에서 AFC 엘리트 팀들을 연파한 패트리엇스를 막을 수 있는 팀이 AFC에는 없어 보인다.

BRONCOS 7승 3패 2번 시드

AFC 서부지구 1위

지난 시즌 수퍼볼에 진출했지만 허무하게 우승 트로피를 내준 브롱코스는 오프 시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쿼터백 페이튼 매닝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리시버들을 영입하고 스타 수비수들을 영입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결과, 브롱코스는 수퍼볼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으로 여겨졌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던 브롱코스는 최근 주전 리시버들의 부상으로 잠

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패트리엇스와, 램스와 경기에서 브롱코스가 패배하면서 쿼터백 매닝을 막을 방책을 다른 팀들도 알게 되었다. 브롱코스는 이번이 없는 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지만 수퍼볼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줄리어스 토마스, 에마누엘 샌드스 등 주전 리시버들이 하루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야 한다.

NFC CARDINALS 9승 1패 1번 시드

NFC 서부지구 1위

NFL에서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카디널스는 무엇보다 코치진의 용병술과 전술이 돋보이는 팀이다. 이

를 날리고 있는 뛰어난 선수는 없지만, 매 경기마다 카디널스는 승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6경기의 상대 팀들은 NFC에서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들이었지만, 카디널스가 경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남은 후반기 일정은 카디널스에게 그리 만만하지 않다. 게다가 주전 쿼터백 카슨 팔머가 부상으로 앞으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지난 주 경기에서 백업 쿼터백 드류 스탠텐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는 했지만 패스의 정확성과 판단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LIONS 7승 3패 2번 시드

NFC 북부지구 1위

라이언스는 현재까지의 기록상으로 NFC 2번 시드에 위치해 있지만 나머지 3팀에 비해 시드를 유지할 확률이 가장 낮은 팀이다. 같은 지구 소속인 팩커스가 최근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이언스는 NFL 최고의 수비 팀으로 꼽힌다. 상대팀에게 가장 적은 야드를 허용하고 가장 적은 점수를 내주는 팀이 라이온스다. 그러나 라이온스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공격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난 주 카디널스와의 경기처럼 상대팀을 14점으로 묶어도 라이온스가 6점밖에 득점을 못하면 경기를 패배할 수밖에 없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문의 :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 1회 제공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대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중앙대학교 치과대학 임상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 이테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p>스페셜 힐링 케어</p> <p>-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p> <p>19만원 → 15만원</p>	<p>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p> <p>-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p> <p>20만원 → 16만원</p>	<p>스페셜 슬리밍 케어</p> <p>-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p> <p>25만원 → 20만원</p>
<p>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p> <p>-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p> <p>32만원 → 26만원</p>	<p>전신 고주파 케어</p> <p>-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p> <p>38만원 → 30만원</p>	<p>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피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상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p>

슈틸리케 감독 "박주영·구자철·윤석영 컨디션 더 끌어 올려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부임 이후 첫 중동 원정을 마친 '슈틸리케호'가 20일(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귀국한 축구대표팀은 유럽과 중동파를 제외한 중국리그, K리그 선수들이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중동 원정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냈다. 지난 10일 요르단 암만으로 떠난 대표팀은 14일 열린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 1-0 승리를 거뒀고 14일 치른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0-1로 패했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던 대표팀은 한교원(전북), 장현수(광저우 부리) 등 젊은피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박주영(알 사뵘), 구자철(마인츠)은 아쉬움을 남겼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날 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원정을 통해 1승 1패의 성적을 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점유율에서 좋았지만 효율성이 떨어졌다. 공격적인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내달 9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예비명단 50명을 제출한 뒤 다음달 30일까지 최종명단 23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슈틸리케 감독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임 이후 4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성과가 있다면.

▶경기에서 2승 2패의 성적을 거뒀다. 전체적인 기록상으론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어느 정도 멤버 구성이 끝났는지.

▶일단 평가전을 통해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 박주영, 구자철, 윤석영 세 선수는 소속팀에서 남은 아시안컵까지 감각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달에 아시안컵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차례 중동 원정을 통해 2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3~4명 정도를 간추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가 깜짝 발탁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국내서 K리그 등을 돌려



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겠다.

-중동 원정 2경기서 1골 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공격진의 부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그 말에 공감한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이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70%, 이란전에서 68%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격쪽에 이렇다할 대안이 될만한 카드가 없어서 더 고민이다.

-차두리가 최근 은퇴를 시사했는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

▶차두리는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다. 최근 그와 면담을 통해 아시안컵 합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필드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 그의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alexei@news1.kr

함께였던 메시와 외로웠던 호날두

(서울=뉴스1스포츠) 김도용 기자 =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표팀 맞대결은 단 45분간 이뤄졌다. 경기장에서 둘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 뒤 후반전은 벤치를 지켰다.

포르투갈은 1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라포드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경기 전부터 현재 세계 축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메시와 호날두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둘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경기에 나서 전반 종료까지 45분을 뛰었다. 하지만 둘이 보여준 경기력은 상반됐다.

월드컵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던 메시는 과거 자신이 뛰던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다. 측면으로 이동한 메시는 앙헬 디마리아, 곤잘로 이과인, 하비에르 파스토레

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책임졌다. 활발한 움직임과 드리블 돌파로 포르투갈의 수비를 위협했다.

반면 호날두는 제대로 된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다. 호날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포르투갈 전체의 문제였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호날두는 나니, 대니와 공격 삼각편대를 이뤘다. 하지만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동료들로부터 제대로 된 패스를 받지 못하며 호날두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와 같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선수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45분의 맞대결을 마쳤다. 두 선수가 벤치를 지키는 동안 0-0으로 끝날 듯 했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라파엘 게레로의 헤딩슛으로 포르투갈이 1-0으로 승리했다. dyk0609@news1.kr



초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밀알 한인교회가 박 일종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알 한인교회 교우 일동

일시: 2014년 12월 7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밀알 한인교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문의: 978-244-0691
www.milal-church.org

밀알 한국 학교 매 주일 9시 30분 ~ 10시 45분, 문의 : 678-516-4974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04년 1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다언어 에이전트 / 200여 개의 도시 / 100여 개의 사무소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180,000 Salem, MA Dard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6 November 21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연말회식은 한국 횡집 스타일로

오빠스시

업소탐방 263

오빠스시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202-3808
www.oppasushi.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치 물회, 광어 회, 생굴, 성게, 칼칼한 매운탕까지. 오빠스시의 한국 횡집 스타일의 코스 요리는 연말 회식이나 모임 때 즐기기에 제격일 듯하다.

울스톤에 위치한 오빠스시는 한달 전 새 주인을 만나 한국인 손님들을 겨냥한 횡집 컨셉으로 탈바꿈했다. 신승철 사장은 “한국의 정서가 묻어나는 횡집 느낌을 손님들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며 한치 물회, 광어 회 등의 메뉴를 선보였다.

4~5인분 기준의 코스요리는 다양한 에피타이저로 시작한다. 한치 물회, 아구 간, 열빙어 튀김, 판자 버터구이 등의 에피타이저는 본격적인 요리가 나오기 전 입맛을 돋운다. 아구 간이나 한치 물회는 신 사장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다는데 단연 15년 차 셰프의 손맛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어 초밥이 올라온다. 오빠스시는 특별히 색이 진한 블루핀 튜나(Blue Fin Tuna)만 사용하는데 일식집에서는 흔히 ‘훈마구로’라 불리는 참치다. 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취급하는 고급스러운 회라는 것.

커다란 판에 광어 회와 생굴, 싱싱한 성게가 올라오면 옆 테이블에서도 신기한 듯 관심을 보이기 시

작한다. 먹음직스러운 푸드데코와 푸짐한 해산물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인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월 새 없이 다음 코스가 올라온다. 김에 싸먹는 화이트 튜나와 화려한 레드 드래곤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한국인이란 빼 놓을 수 없는 얼큰한 매운탕도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 맵기는 주문 시 조절할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겠다. 후식은 커피나 아이스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코스요리를 주문하고 싶다면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그날 가장 싱싱한 해산물로 요리하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나 메인 디쉬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4~5명이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의 가격은 \$150.

“스시로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많이 없다” 는 신 사장은 “한국 횡집 분위기가 나는 메뉴로 구성해 한국 손님이 좋아할 만한 코스요리가 될 것” 이라고 자신 있게 전했다.

오빠스시의 또 다른 인기메뉴는 짬뽕라면이다. 다소 느끼할 수 있는 일본식 라면을 짬뽕 육수를 우려내 얼큰하게 만든 메뉴라고 한다. 직장인 한 씨는 “보이는 것처럼 맵지도 않고 깔끔하다” 며 “가격

도 괜찮아서 앞으로 자주 먹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짬뽕라면의 가격은 \$8이다.

이 외에도 큰 모임을 위한 사시미, 초밥, 롤, 김밥 등의 케atering 주문도 받는다고 하니 연말 특별한 모임에 오빠스시의 푸짐한 요리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서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덱펀던트(부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이 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 헤어 디자인	781-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8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영국	617-650-666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북경반점1	617-623-7220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펜던트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치과	617-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메이치과	781-894-1127
아이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비치몰랜드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기와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T. 781-424-2872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 환영, Natick
T. 509-655-5004

11/28
벌링턴에 위치한 일식집(산수갑산)에서 주방보조 구함 (풀타임)
T. 718-690-0089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10/31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12/19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 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10/17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11/28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10/17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10/31
N [마사지구인]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10/17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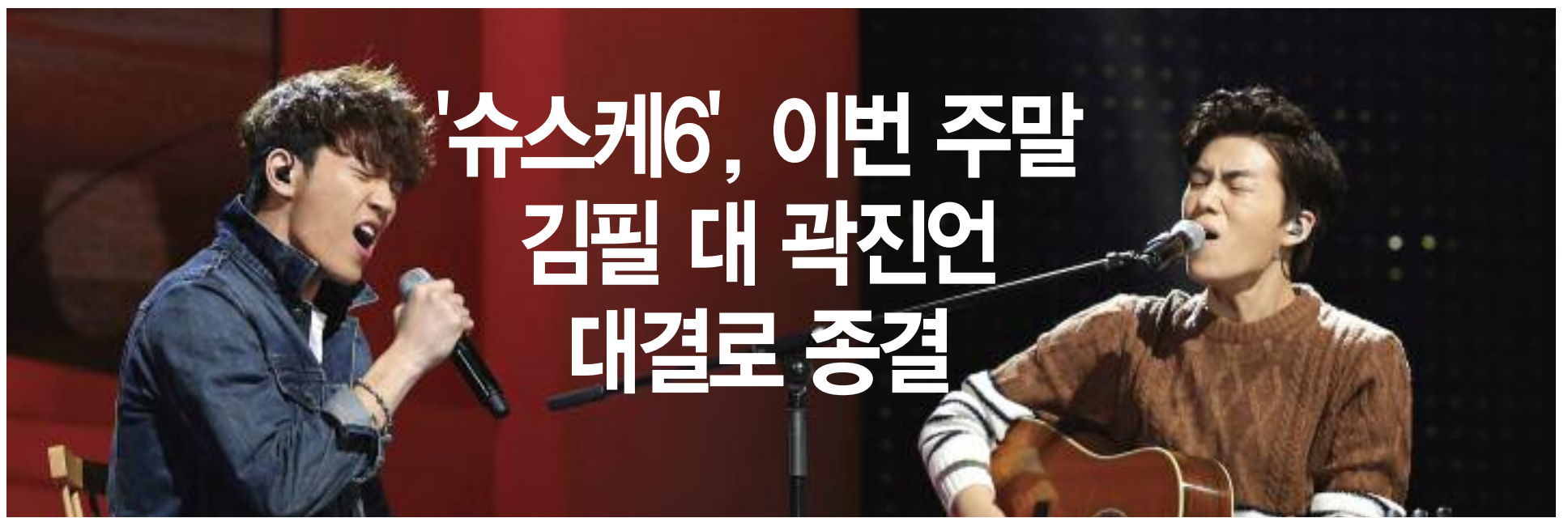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슈스케6', 이번 주말 김필 대 콕진언 대결로 종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현아 기자 =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6' 결승전에서 김필과 콕진언이 대결한다. 이번 시즌을 빛낸 최고의 라이벌이자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두 남자의 대결이라는 것과 우승자를 점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라는 점에서 둘의 대결을 향한 기대와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1일 결승전 맞대결을 앞둔 '슈퍼스타K6' 김필과 콕진언은 이번 시즌 내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왔다. 시청자를 사로잡는 음악적 깊이와 천재적인 편곡 능력을 보여준 콕진언과 독보적인 음색과 가슴을 두드리는 감성의 '고드름 보컬' 김필은 톱3에서 아쉽게 탈락한 임도혁과 함께 이번 시즌 최고의 도전자들이었다.

특히 슈퍼위크 콜라보레이션 미션에서 콕진언, 김필, 임도혁이 함께 부른 '당신만이'는 슈스케 사상 최고의 무대 중 하나로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백지영은 "막싱하고 마스터링까지 돼 있는 완성된 음악인 줄 알았다"며 눈물을 글

썩거렸고, 이승철은 "정준영과 로이킴의 콜라보레이션을 능가하는 최고의 무대"라며 극찬했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두 사람은 단번에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고, 방송 이후 출시된 음원까지 1위 돌풍을 일으키며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 무대를 통해 우정을 쌓은 두 사람의 시너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슈퍼위크 라이벌 미션에서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재해석해 또 한 번 최고의 심사평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 무대를 본 윤종신은 "슈스케가 보여줘야 하는 오디션을 보여줬다"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백지영도 "둘은 대결이 아니라 정말 노래를 위해 노래했다"고 칭찬했고, 김범수는 "이제 이종격투기 시합이라면 연장전 가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 이번 시즌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쪽은 콕진언이었다. 첫 방송에서 자작곡 '후회'를 선보인 콕진언에게 김범수는 "유니크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고, 윤종신은 "가장 좋아하는 참가자다"라고 말했다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역시 자작곡 '크라이

'를 부른 김필의 등장은 다소 평범했다. "갈고 닭은 음색이 돋보인다"는 심사평과 함께 가능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슈퍼위크의 콜라보 무대와 라이벌 미션을 통해 김필의 스타성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번 시즌 숙명의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톱11 생방송 무대에 들어서자 김필의 가파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탄탄한 복근까지 공개하며 여심을 공략한 김필이 처음 두 번의 생방송에서 연이어 심사위원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우승 후보 1순위로 올라선 것. 그를 결승까지 올려놓은 독보적인 음색이 적절한 선곡과 함께 빛을 발하며 생방송 경연 초반 톱11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첫 생방송에서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를 부른 김필은 이승철 심사위원으로부터 "남자가수로서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무대. 흠잡을 데 없는 날카로운 고드름 같은 보컬이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고드름 보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어진 두 번째 생방송에서 이승철을 '기다림'을 선보인 김필은 "간주를 받아들이는

숨소리조차 음악의 일부였다"는 백지영 심사위원의 심사평 등 호평 속에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으며 초반 레이스를 주도했다.

윤종신 심사위원에게선 "국제무대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스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래를 완벽히 '김필화'했다"는 극찬까지 받았다.

콕진언의 초반 생방송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첫 생방송에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부른 콕진언에게 이승철은 "목소리 하나로 모든 악기를 필요 없게 만든다"고 했으며, 심재철의 '안아줘요'를 부른 두 번째 생방송에서도 윤종신 심사위원에게 "콕진언은 자기만의 표현을 하며 말을 할 줄 안다"는 심사평을 들으며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천재적인 프로듀싱 감각으로 슈퍼위크 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콕진언의 진가는 생방송 3라운드부터 더욱 빛을 발했다. 서태지 미션에서 '소격동'을 부른 콕진언에게 백지영 심사위원이 "처음 첼로가 시작되며 끝났구나 생각했다. 울림을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만장일치의 극찬이 쏟아

지며 최고점이 주어진 것이다.

계속되는 생방송 라운드에서도 콕진언은 호평을 이어갔다. 특히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은 "모든 노래를 자기화해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것. 지난 7일 생방송에서 윤종신의 '이별의 온도'를 부른 콕진언에게 윤종신 심사위원은 "자기답게 잘 소화한 것 같다. 진솔한 감정을 봐서 좋았다"고 했고, 지난주 준결승에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을 선보였을 때는 김범수 심사위원으로부터 "타고난 재능 뿐이고 대담한 승부사다"라는 극찬을 얻어냈다.

결승 대결을 하루 앞둔 현재 두 사람의 사전 온라인 투표 득표율은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는 50대 50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시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박빙의 승부라는 것이 결승전을 예측하는 모든 전문가의 중평. 실력이나 팬덤, 무대에서의 승부사적 기질 등 그 어느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편, 콕진언과 김필의 대결로 압축된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21일 오후 11시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hpark@bostonkorea.com

하이수현 '나는 달라' 가온차트 주간 2관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하이수현의 '나는 달라'가 가온차트 주간차트 2관왕에 올랐다.

20일 가온차트측에 따르면 47주차(11월9일~11월15일) 가온차트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가수 이하이와 악동뮤지션의 이수현이 함께한 하이수현의 '나는 달라'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곡은 47주차 가온차트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1위를 달렸다.

2위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솔로로 발표한 '광화문에서'가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MC몽의 '내가 그리웠니'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 5위는 AOA의 '사뿐사뿐'이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다.

47주차 가온차트 앨범차트는 규현

의 '광화문에서'가 1위를 차지했으며 SNS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소셜차트에서는 AOA의 '사뿐사뿐'이 1위를 차지했다.

가온웨이보차트 그룹부문 1위는 슈퍼주니어가, 개인부문은 엑소의 세훈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star@news1.kr



김범수, 8집 'HIM'으로 컴백

"가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앨범"

어떤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김범수가 8집 정규앨범 'HIM'을 공개한다.

김범수의 3년여만의 정규앨범 'HIM'의 전곡 음원이 20일 0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앞서 밤 11시 Mnet '컴백쇼'에서 새 앨범 무대를 펼친다.

김범수의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집밥'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감성적인 멜로디와 트렌디한 편곡으로 발매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트랙리스트가 공개되며 수록곡에 다양한 힙합 뮤지션들이 피쳐링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김범수가

어떤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음원 공개보다 1시간 일찍 방영되는 Mnet '컴백쇼'에서는 새 앨범 타이틀곡 '집밥'을 포함해 수록곡 '따동감', '육심쟁이', '눈물나는 내 사랑'을 방송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js753@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1월 10일 ~ 11월 16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1.9%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4.7%



3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0.0%

- 4 KBS1 KBS9시뉴스 17.4%
- 5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6.9%
- 6 KBS2 해피선데이 16.4%
- 7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6.0%
- 8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5.3%
- 9 KBS2 개그콘서트 14.5%
- 10 KBS1 러브인아시아 13.8%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나는 달라 HI SUHYUN
- 02 내가 그리웠니 MC 몽
- 03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MC 몽
- 04 죽을만큼 아파서 Part.2 MC 몽
- 05 해픈엔딩 에픽 하이
- 06 광화문에서 규현
- 07 마음 단단히 먹어 MC 몽
- 08 12시 30분 비스트
- 09 도망가자 MC 몽
- 10 BORN HATER 에픽 하이

숫자 퍼즐 (Sudoku)

7				4	6	5	
	6	3		8			
			2		4	9	
			5			4	9
		1		2	7		
6	4			9			
	7	9		1			
			8		2	7	
8		4	6				1

11월 23일 - 11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p> <p>● 운수: 대부분의 사람은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 금전: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6, 29일 길일, 23, 28일 주의.</p>	<p>소띠 유리한 상황으로</p> <p>● 운수: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독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 금전: 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지금 사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 애정: 우선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5일 길일, 23, 29일 주의.</p>	<p>범띠 기대와는 다르게</p> <p>● 운수: 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돈 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체 거래하지 마세요. ● 애정: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토끼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p> <p>● 운수: 흑시라도 만나주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 금전: 편한 것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다 변화도 시도해야 발전이 있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 애정: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7일 주의.</p>	<p>용띠 편하게 생각해야</p> <p>● 운수: 살다보면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니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 금전: 큰 소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애정: 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스스로도 제어하기가 힘들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뱀띠 미리 확인을 하고</p> <p>● 운수: 예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이대로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애정: 좋았을 때는 그대로 견뎌낼 수 있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말띠 타인의 시선을</p> <p>● 운수: 계속해서 쓰자니 여러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직원 문제로 고심하게 됩니다. ● 금전: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양띠 금전용통이 수월하게</p> <p>● 운수: 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 금전: 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용통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원숭이띠 급한 순서를 정해서</p> <p>● 운수: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미리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쉽게 바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닭띠 정보에 의존해서</p> <p>●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p>개띠 다시 한 번 실감</p> <p>● 운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금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 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돼지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p> <p>● 운수: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없고 그렇다고 나서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이 나가거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8일 길일, 27, 29일 주의.</p>

소녀시대 윤아, 여신 미모 과시

“명작으로 기억되는 작품 만나고 싶다”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걸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화보를 통해 여신 미모를 뽐냈다. 윤아는 매거진 '인스타일' 12월호 화보에서 사랑스러운 파스텔 컬러의 우아하면서도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겨울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윤아는 이전보다 한결 깊이 있는 눈빛으로 완성도 높은 화보를 완성했다. 화보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한층 성숙하게 무르익은 윤아의 눈빛에서 여자의 깊은 드라마가 느껴진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윤아는 공식 앨범 활동 이후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황을 전하며 평범한 또래 친구들처럼 벗꽃놀이, 배낭여행을 가장 해보고 싶은 일로 꼽았다. 또한 "영화 '귀여



운 여인'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명작으로 기억되는 작품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아의 화보는 '인스타일' 12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아 화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윤아, 진짜 예쁘다", "윤아, 여신이네", "윤아, 인형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김연아·김원중 결별 이유 재할 치료와 성격차가 영향 미쳐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전 피겨 선수 김연아가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과 결별했다.

19일 한 매체는 "김연아가 최근 김원중과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 정확한 결별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원중 선수 측근은 "김원중이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또 성격차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결별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연아와 김원중은 지난 3월

열애를 공식 인정 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0년 김연아가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 만났으며, 2012년 태릉에서 다시 만나 약 8개월 간의 인연을 이어갔다.

김연아 김원중 결별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연아 김원중, 결국 헤어졌네", "김연아 김원중,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김연아 김원중,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suyoung0403@news1.kr



하정우·하지원 주연, 허삼관 1월 15일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허삼관 1월 15일 개봉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배우 하정우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영화 '허삼관'이 내년 1월 관객들과 만난다. 배급사 NEW는 20일 '허삼관'(감독 하정우)의 개봉일을 내년 1월 15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허삼관'은 세계적 소설가 위화의 대표작 '허삼관 매형기'를 원작으로 돈 없고, 대책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뒤끝만은 넘치는 최고의 명물 허삼관

이 절세미녀 아내와 세 아들을 둘러싸고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하정우와 하지원의 부부 호흡과 총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들의 모습이 담긴 스틸이 공개된 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혜진, 장광, 주진모, 성동일, 이경영, 김영애, 정만식, 조진웅, 김기천, 김성균 등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 개성 강한 캐릭터를 보여줄 예정이다.

star@news1.kr



사유리, 양평이형에게 애정 공세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방송인 사유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하세가와 요헤이(양평이형)에게 애정공세를 펼쳤다.

이날 MC들은 통통한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하세가와에게 "사유리가 은근히 통통하다"며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이어진 전화연결에서 사유리는 "처음에 하세가와씨에게 약간 호감이 있었는데 연락도 없고 무시당했다"라고

말해 하세가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에 하세가와는 사유리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부담스러워하며 전화가 끊긴 척 연기해 웃음을 자아냈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2)>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1)



김해 대성동 동북 : 신라금관
(왼쪽: 대성동 29호분, 오른쪽: 대성동 47호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만든 3명의 정복자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에 이르지 못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히랍에서 이집트, 인도까지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다.

세 번째 사람은 독자들에게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4세기 말에, 흑해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나타나 순식간에 전유럽을 석권한 훈(Hun) 족의 왕 아틸라(Attila 395-453)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정복한 영토는 남쪽으로 도나우 강에서 북으로는 발틱해까지, 동쪽은 우랄 산맥에서 서쪽으로는 알프스, 프랑스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아우르고 있었다.

당시 동로마 제국은 그에게 항복하고, 너무나 버거운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국력이 쇠진되어 멸망하게 되었고, 서로마 제국도 아틸라에게 밀라노(Milano)를 빼앗기고 국력이 다해 망했으니, 아틸라가 정복한 영토는 유럽 전부가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아틸라가 서로마 제국에 남긴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아틸라의 말이 밟고 지나간 땅에서는 풀조차 나지 않는다” 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그는 잔인하였고 전유럽을 공포로 가득차게 하였다.

훈족이 이탈리아 반도 북쪽 아드리아 해역에 있는 베네치아로 쳐들어 오자 사람들은 근처의 섬으로 도주했다. 훈족을 피해 섬으로 달아난 사람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여러 작은 섬에서 서로 의지하며 생선을 주식으로 하고 소금을 만들어 무역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이 작은 섬들이 지금의 수상도시 베니스로, 아틸라가 무서워 도망친 사람들이 만든 도시인 것이다.



각지역 동북 비교 : 신라금관
(왼쪽: 5세기 헝가리 훈족 동북, 오른쪽: 섬서성 후한 시대 동북)

AD375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하여 동고트, 서고트 왕국을 침공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야기시킨 훈족의 유럽 침공은 비록 100여년만에 끝을 보지만 유럽의 두 강대국인 서로마,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다. 훈족은 절대강자였다. 또 무서움의 실체였다.

훈족이 유럽을 석권하고 1,500년이 지났지만 유럽의 사가들은 그들을 공포로 떨게 만든 훈족을 비하하는 편견과 경멸에 찬 적대감으로 훈족을 바라보고 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신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잔인한 훈족을 내려 보낸 것으로 비하하였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암미아누스는 훈족의 생김새를 표현하기를 “그들은 어렸을 때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어 어른이 된 다음에도 털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강인한 팔마디에 굵은 목을 지니고 흉측한 형상이 두 다리로 걷는 짐승처럼 보였다” 고 표현했다.

훈족을 직접 만나본 클레르몽의 주교 시도니우스 아포리나리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은 혐오감을 준다. 그들의 코는 모양이 없고 평평하며, 광대뼈는 튀어 나왔



훈제국 영토

다. 두 개의 눈에는 눈꺼풀이 조그맣게 열려 있어서 광선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다” 고 표현했다.

고트 왕국의 역사가 요르다네스는 아틸라의 외모를 “그는 키가 작고 가슴이 넓으며 그 위로 거대한 머리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회색빛 눈동자, 납작한 코, 새까만 피부를 지니고 있다” 고 표현했다.

훈족과 그들의 전신으로 생각하는 흉노족은 문자가 없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훈족이나 흉노의 침략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표현은 공평하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절제 없는 과장이 많고 훈족에 대해 나쁜 인상을 남기려고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유럽 사람들의 훈족에 대한 평가 역시 공평한 평가가 아니었다.

같은 동양 사람인 한나라 때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도 은연중에 흉노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신체는 작지만 땅땅한 편이며, 머리는 아주 크고 둥글며 안면은 넓고 광대뼈가 튀어 나왔다. 눈썹은 짙고 눈동자는 불타듯이 강렬하며 눈은 찌진 모양이다.”



알타이 동북

같은 동양사람도 흉노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데 서양사람들이 편견이 없었으니 만무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훈족의 원류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아시아 유목민들의 모습이였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어느 민족이 원류인가? 예가미 나미오

동경대학 교수는 한때 훈의 세력권이었던 불가강 유역에서 판노니아(헝가리) 평원에 걸쳐 흉노식 유물이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시아의 흉노족이 서진하여 훈족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훈족들이 서방으로 진출할 때 알타이 지역을 지나 아랄해와 카르파티아 초원 지대를 지났는데 이들 경로에 대소형 동북(銅鑊)이 30여 개가 발견되었다.

동북은 흉노를 상징하는 유물이였다. 원래 동북은 스키타이, 흉노족들이 말 등에 싣고 다니며 취사나 제사 도구로 사용했는데 흉노 수장의 상징물로, 수장이 사망하면 사용하던 동북을 다음 수장이 물려받곤 하였다. 동북은 스키타이 식 동북은 반구형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흉노 식은 술모양으로 때로는 화려한 장식이

치장되기도 한다.

흉노 식 동북은 황하상류 내몽고 오르도스 지방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몽골의 노인올라(Noin Ula) 고분군, 알타이 산맥, 우크라이나 불가강 유역, 돈강 유역, 헝가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만주의 길림성에서도 발견되었다.

유럽에서 발견되는 동북이 몽골, 오르도스 지역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훈족의 원류가 흉노계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동북이 출토된 지역은 예전에 흉노, 선비족의 거주 지역이였다. 그런데 평양 석암리 219호분, 토성동 486호분에서도 동북이 발견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김해 대성동 29, 47호분과 양동리 235호분에서도 동북이 출토된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 왕족의 묘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 유물로 왕의 위세품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해에서 발굴된 3개의 동북으로 인해 세계의 고고학자들은 훈족과 가야, 신라의 친연성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추수감사절 학업 향상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3일과 27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맑고 밝은 웃음은 기가 뿜어져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

갑오년 말피 해인 2014년도의 캘린더도 이제 달랑 1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쯤에는 한 해 동안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다. 잊그제는 맑고 밝은 동생과 말간 마음의 언니와의 만남으로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서로 공통분모가 있어 셋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이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흠을 만지며 삶을 노래하는 도예가 동생은 첫 만남부터 무엇인가 소통이 잘된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와 띠동갑이라 더욱 마음이 동했던 이유였다. 그리고 말간 영혼의 소유자인 화가 언니와의 만남은 늘 내게 넉넉한 친구자 멘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초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저녁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는 언니와 동생과 함께 셋이서 나란히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마침 앞 자리에 사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마주 앉게 되어 셋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주셨다. 그 사진 속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입가의 웃음이 흐르고 마음에 뿌듯함과 함께 기쁨이 솟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싶다, 행복이란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에서의 나눔이 아닐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넉넉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반평생을 미혼으로 살며 그림과 결혼을 한 맑고 고운 한 여자. 그녀는 나이 든 노(老)처녀가 아닌 언제나 이슬 같은 노(露)처녀다. 40년의 세월동안 그림만을 그려온 그야말로 화가도 아닌 '환쟁이'라 말하는 것이 더욱 어울릴 착하고 말간 영혼을 가진 화가 언니. 그리고 '맑고 밝아' 좋은 기운을 언니들에게 꼭꼭 나눠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도예가 동생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이 절로 넘쳐흐르는 동생이다. 그리고 '변화무쌍' 그 자체인 한 여자가 세상의 스케치를 하며 작은 렌즈 속 큰 세상을 글과 사진으로 담으며 사는 여자. 이렇게 세 여자가 만나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화가와 도예가 그리고 글쟁이(사진) 셋이서 모이면 세상의 나이는 잊은 채 서로 친구가 되어 대화는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셋이 모이면 화들짝거리며 행복에 겨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듯 예술쟁이들의 대화는 늘 언제나 재미 있다. 그것은 아

마도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일게다. 이리저리 재지 않고 서로에게 꾸밈없이 속 시원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더욱 편안한지도 모른다. 이런 관계가 쉽지 않기에 더욱 귀하고 값진 보석같은 사람들이다. 환한 웃음이 절로 세상의 시름을 씻어주고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다.

살다보면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보다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 개인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색깔과 모양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 어찌 내 일 남의 일이 따로 있을까 말이다. 그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뿐이다. 그러니 기쁨과 행복으로 있는 이들과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있는 이들과는 그마저도 함께 충분히 가슴을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 내 일이 네 일이 될 수 있고 네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쁘고 행복한 일에 더욱 행복한 애기를 더 해주는 이가 좋고, 나의 아프고 슬픈 일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는 이가 좋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게다. 그것처럼 곁에 맑고 밝은 기운을 나눠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이가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나누주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맑고 밝은 에너지를 나눠줄 소망해 본다.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일 것이다.

기쁨은 기가 뿜어져 기쁨이라는 것이다. 좋은 에너지를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우울한 에너지를 몰아내고 환하고 밝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맑고 밝은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마주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다. 즐거움에 있는 이에게는 더욱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고 우울한 이에게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맑고 밝은 웃음은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마주한 환한 웃음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까닭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머물고 싶던 순간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추위를 먹었다. 더위 먹는다든 말은 있는데, 추위를 먹는다든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입에 담았던 적도 없다. 그런데 올해는 추위를 먹었다. 목이 칼칼해지고, 으실으실 몸이 떨렸다. 오한이 생기면서 진땀까지 스며들며 비어져 나왔다. 감기인게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리는데, 가을 감기에 잡혔던 거다. 윤9월이라 그런가. 감기는 오래 갔다.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예프.

운전 중이었다. 개성삼절開城三絶이 뭐더라? 고 스스로 물었다. 박연폭포와 황진이 일텐데, 유학자 한 분 이름을 떠서 올릴 수 없었다. 입안에서도 머릿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다. 아직 인터넷이건, 워킹 없던 시절이다. 위키니 네이버도 당연히 없다. 그렇다고

한국에 전화해서 그가 누구더냐고 묻기에는 뜬금없고 황당하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따금 질문이 다시 되살아 났다.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는 거다. 몇 년인가 흘렀다. 이름이 생각났다. 화담 서경덕.

손에 가시는 뿔아내지 않으면 성가시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닌 것이, 걸릴 적마다 짜증스러운 게다. 다시 운전 중이었다. 그게 누구더라? '머물고 싶던 순간들'을 쓴 작가. 제목은 생각하는데, 작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입안에서도 슬금슬금 도는데, 온전한 이름이 되어 나오지 않았던 게다. 박모였는데, 끊임없이 이름을 붙여 봤다. 행여 이름자가 튀어 나올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여영 아니었다. 손가락에 가시를 뽑아 내기로 했다. 이번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았다. 박계형.

간지러운 이야기에 가슴설레던 아릇한 시기였다. 학급 교실에 그 책이 돌아다녔다. 앞뒷

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너무 많은 대본貸本손님을 거쳤다. 어렵게 내 차레가 되었다. 그저 그런 범생이었으니, 당연히 순서도 늦다. 늦뒀을 보상받을 요량이었으니 단숨에 읽었다. 그렇다고 저녁까지 굶지는 않았는데, 금서襟書로 낙인찍힌 그 책을 숨어서 보는 건 짜릿했다. 다락 속에 들어가 읽었던 기억이다. 다락은 나만의 숨은 공간이었다. 다락속은 어두웠지만, 그런대로 안락했다. 읽고 난 밤 잠자리에 누웠다. 천정벽지 사방무늬가 어둠 속에서 회전하고 있었다. 주인공 연희가 나오고, 별빛이 우물가로 소슬히 내렸다. (주인공 이름이 연희인건 내 기억이다. 인터넷에서도 여주인공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연희의 뒷모습에 아직 봄 햇빛 냄새가 났던가. 그 날은 봄날 밤이었을 게다. 지금은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 제목도 틀렸다.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 이란다. 하지만 '머물고 싶던 순

간들'. 이 말이 더 명징하지 않은가. 내게 더 머물고 싶던 세월이 있던가. 아내에게는 머물고 싶던 시간이 있을겐가.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오래 머물고 싶던 시간일까. 나 혼자 오해하고 있다. 아내도 단발머리 여학생시절을 거쳤을 텐데, 무슨 책으로 그 시절을 넘어왔나. 내가 뭐 그렇다고 데미안이니, 그런 책은 읽지 않았다. 홍의소녀紅衣少女가 나오는 무협소설은 몇 권 읽었다. 정협지니 뭐 그런 류의 책이다. 아내가 말할지도 모른다. '수준고하는, 쫓쫓' 내 아이는 무엇으로 힘겨운 사춘기를 넘어가고 있는가. 누구라도 그러하듯, 당신도 오래도록 머물고 싶던 시간들이 있으신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로마서 11:22)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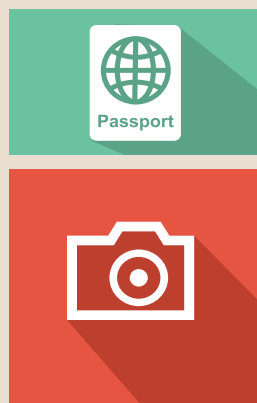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7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만술이다. 제5세는 좌우 등자 뒤에 몸을 숨기는 장나리障泥裏를 한다. 즉 등자 뒤에 몸을 숨기고 손으로 모래와 흙을 움켜 쥐고 어지러히 던지며 발꿈치를 걸고 거꾸로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좌우 양쪽에서 할 수 있다. 제6세는 세로 누워 말꼬리를 베고 눕는데, 좌우로 몸을 감추거나 좌우로 넘나드는 것을 구분하여 여덟가지의 세로 하기도 한다.

이상의 기법을 단마單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쌍마雙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쌍마를 사용할 때는 서로 엮어서 사용하기에 모든 자세와 동작이 동일하다.

보군步軍들이 입는 보예관복도설부藝冠服圖說에 보면, 무예도보통지 24번에서 장창, 죽장창, 기창, 당과, 낭선, 쌍수도, 예도, 제독검, 본국검, 쌍검, 월도, 협도, 등패, 곤방, 편곤을 익힌 자는 모두 전건(모자), 망수의(윗저고리), 또는 청홍황색의 얼룩무늬옷과 청홍황색의 바지와 버선을 갖추어 입는다. 다만 왜검, 교전, 권법을 익힌 자는 감두를 쓰고 망건을 풀고 실로 상투밑을 묶는데, 마치 지붕있는 가마의 호로박꼭지와 같다. 옷과 바지와 버선은 같다. 마군馬軍들의 복장인 마예관복도설馬藝冠服圖說에 보면 기창騎槍, 쌍검, 월도, 편곤을 익힌 마군들은 모두 투구와 갑옷을 입는다. 격구를 할 때 입는 복장을 정해 놓은 격구관

복도설에는 발립, 삽취우, 호수의, 흥점리, 이두속, 광조대, 비저, 사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상재 시 입는 복장은 마상재관복도설에 나오는데 전립이나 투구를 쓰고 흥이나 황색의 호의(더그레, 긴 조끼와 비슷하다)를 입고 같은색의 바지를 입고 옹혜(가족신의 일종)를 신지 않는다.

이상이 무예도보통지에 실려있는 무예24기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다음에는 조선의 후기를 지나 말기로 들어가면서 무예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살펴본다.

94) 징비록은 서애西厓 류성용이 지었다. 1592년에서 1598년까지의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고 나서 자신을 징계하며 써서 후세에 길이 남겨 후환을 없애자는 동기에서 기록한 쓰라린 반성의 저술이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의 소비편小邳篇의 '예기징이비역 환豫其懲而毖役患,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징비록은 우리나라 국보 제132호이며 경상북도 안동에 소장되어 있다. 류성용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칩거할 때 저술을 시작하여 1604년(선조37년)에 마쳤다. 책의 내용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배경, 자신과 조정의 잘못과 실책, 백성들의 임금과 조정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처음 간행은 그의 아들 류진이 '서애집' 과 함께 1633년(인조11년)에 간행하였다. 다시 1647년에 독립된 16권7책으로 간행하였다. 1695년(숙종21년)에 일본에서 중간되었고, 1712년(숙종38년)에는 일본에서 간행되는 것을 경계하여 수출을 금지하였다. 1936년 안동 하회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던 류성용의 자필 필사본을 영인하여 출간하였다. 최병현의 영역본도 있다.(The Book of Corrections, 2003년) 김흥식이 옮긴 국역집 등이 있다.(서해문집, 2003년) 임진왜란의 전모를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에 임진왜란의 많은 기록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사료史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다.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이며, 2점의 보물 건축물과 국보로는 징비록과 하회탈(제121호) 등 2점 소장하고 있다. 하회마을을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하였다.(브라질에서 개최된 제34차 회의에서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결정되었다) 하회마을은 하회 류씨 집안의 발상지이며 서애 류성용과 격암 류운용(류성용의 형)이 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풍산 류씨가 600여년간 터를 잡고 살아 왔으며 대부분이 풍산 류씨들이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승철씨가 (아마도 독도에서 노래를 했던 최근 행보가 발단이 되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뉴스를 확인한 오늘로부터 꼭 60년 전인 1954년 11월 12일... 뉴욕 맨하탄 근처의 엘리스섬 (Ellis Island)의 이민 사무국 (Federal Immigration Station)이 폐쇄되었다.

아일랜드 대기근, 뉴욕 콜레라, 그리고 캐슬 가든 이민 사무소

입국 단계에서부터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1845년 아일랜드에서 단시간에 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감자 대기근(Potatoes Famine)은 아일랜드인들에게 확실한 방출요인 (Push Factor)이 되었다. 1845년 후 약 5년간 미국 땅을 밟은 아이리쉬의 수는 50만명이었다.

물론 감자 대기근 이전에도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은 다수 존재했다. 가령 1825년 완공된 이리 운하(Erie Canal) 등 수로 공사를 담당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철도가 운하를 대체해가던 시기 철도 공사장에서 일했던 건설 노동자들 중에 아이리쉬계 이민자가 다수 있었는데, 대개는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 숙련공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식민지 시대에 이주했던 스코틀랜드계 아이리쉬들은 개신교를 받아들인 이들이었고, 미국의 건국에도 굵직한 이름을 올린 이들이었다.

그런데 1840년대 이후부터 아이리쉬 이민의 양상이,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 일단 숫적으로 대규모가 되었지만, 이들의 대부

분은 숙련된 기술이나 교육, 혹은 이민에 대한 사전 정보라든가, 정착금 따위 없는 채로 미국에 왔고,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당시 미국에서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은 노골적이고도 공공연한 천덕꾸러기였다. 일단 "거지꼴" 을 하고 미국에 왔다는 점 때문에, 대개는 열렬한 카톨릭이었던 탓에, 그리고 그냥 괜히 싫어서, 매우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반이민정서 (Nativism)은 신규 이민 유입 반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등장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1849년 뉴욕에서 대유행했던 콜레라 역시 가족이나 천대받던 아이리쉬 이민자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뉴욕은 대부분의 아이리쉬계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며, 그들이 밀집해서 거주했던 곳이지만, 공중위생 수준은 아직 열악했던 시기다. 유럽 곳곳을 돌다가 뉴욕에 상륙한 콜레라와 아이리쉬 이민의 대규모 유입은 결코 무관하지는 않았을 게다.

그러하여 뉴욕 주는 뉴욕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터리 공원 (Battery Park)에 위치한 요새 캐슬 클린턴 Castle Clinton (혹은 캐슬 가든)에 미국 최초의 이민사무국 (New York State immigrant processing facility)을 개설하게 된다.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고자 하는 균중들이여, 내게로 오라."

19세기 후반부의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차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자본가의 탄생, 생산력의 급격한 증가, 노동운동, 세금 혹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정치 논쟁들, 도시의 발달 등이 이시기의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라는 형태로, 대규모 이민의 물결을 가져오는 견인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민자들은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노동력" 을 공급할 수 있었으니까. 또 하나 견인요인으로 작용했던 교통의 발달 역시 19세기 후반의 대규모 이민을 부추겼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을 견인요인으로 미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숫적 다수는 아일랜드계나 독일계가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슬라브, 폴란드 체첸 등의 남동부 유럽출신 이민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주한 (주로 짜르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차지했다. 이러한 트렌드에는 19세기 후반 극심한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겪던 남동유럽의 정세 즉, 방출요인의 공이 크다 하겠다. (비유럽권인 시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출신 이민도 같은 이유로 급증했다)

여러 날의 항해로 지친 이주자들이 "아 이곳이 미국이구나!" 라고 처음 느낄 수 있는 상징일 수도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이렇게 써있다고 한다.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고자 하는 균중들이여, 내게로 오라."

하나 현실에서 자유의 여신은 가난한이들에

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캐슬 클린턴의 이민사무국은 1855년 설립되었는데, 채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이민자그룹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쓰레기" 를 맨하탄에 그냥 쏟아붓는 것에 대한 뉴욕인들의 반발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에 미국정부는 1890년 이민업무를 연방정부 소관으로 옮긴 후, 1892년 맨하탄 근방의 아주 작은 섬인 엘리스 아일랜드에 새로운 이민 사무국을 설치했다.

1등칸에 승선한 이들은 간단한 서류 심사 후 바로 내릴 수 있었지만, 3등칸 승선객들은 긴 줄을 기다려 건강검사와 서류검사를 마쳐야했고,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엘리스섬에 격리, 구금되거나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해야했다.

엘리스 아일랜드 시기, 대규모 이민에 대한 대규모 반이민 정서는 1921년과 1924년에 각기 발효되었던 이민 제한법 (Immigration Quota Act of 1921 & National Origins Act of 1924)으로 이어졌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엘리스 아일랜드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120만명 수준이다. 그런데 1892년부터 약 60년간 이민자들의 관문 역할을 했던 엘리스섬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총 이민자수는 약 1200만명. 오늘날 약 1억 명의 미국 인구 중 40% 가량은 이곳 엘리스섬을 거쳐갔던 대개는 환영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의 후손일 것으로 추산된다 고한다. 미국 이민사에 있어 엘리스섬이 차지하는 무게는 결코 작지 않은 듯 싶다.

그가 온다!!!

변진섭

“희망사항”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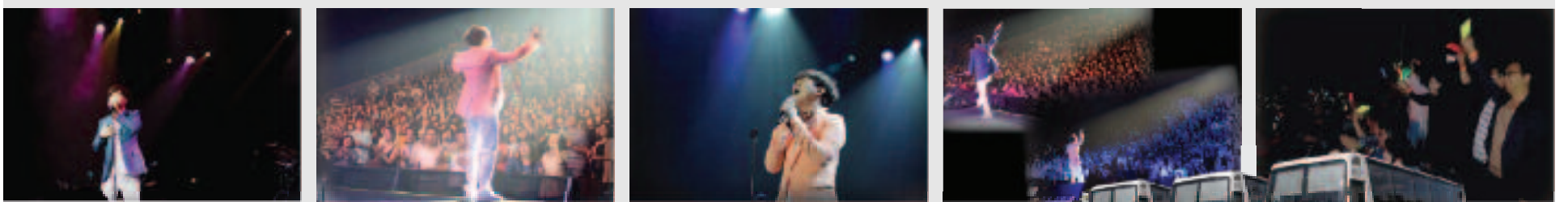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EARLY BIRD SPECIAL
 11월 중에
 티켓을 구매하시면
 공연후 가수와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

티켓 \$30, \$50, \$70, \$90, VIP \$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티켓 예매 및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 한양마트 ticketmaster.com

공연장 Bergen Performing Arts Center(뉴저지 버겐팩)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주최: 교차로 신문사 레이디경향 주관: pav M&C 특별후원: ASIANA AIRLINES 7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벵룩시장 코리아 버겐뉴스 보스턴 코리아 카로수 월운 후원: 동로상회 wellbeing PLUS 우리사우나 WOOD SAUNA & SPA 한양마트 코리아나투어 tbo 다모탈모병원 핑크네일 에릭오 구강악안면외과 NVE BANK You belong here.



독자기고
김철

미국서부 지질학기행 만리길 1

1. Grand Teton National Park

여섯 번째로 미국을 또 찾았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하여 공항에서 여섯 시간 기다린 후 국내선으로 바꿔 타고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왔다. Jackson Hole 공항에서 보스턴으로부터 먼저 와있던 딸네 식구랑 합류하였다. 그 다음날 북쪽을 향해서 옐로스톤으로 가는 도중에 Grand Teton 국립공원을 지나갔다. 해발고도가 4000m 넘기에 만년설과 작은 빙하까지 만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 Teton산맥을 배경으로 한 한 농가의 헛간은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로망이 되고 있는 출사 명소로서 한번 찾아가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다.



2. Yellow Stone 국립공원

영화나 여행기를 통해서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실로 감개가 무량했다. 사흘쯤은 돌아봐야 되는데 이틀만에 다 끝낼려고 하니 무척이나 바빠 돌아다녔다. 여기 볼거리의 크게, geyser로 불리우는 간헐 온천, spring으로 불리우는 다양한 형태의 온천들, 진흙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mud volcano, 꽤 낙차가 있는 폭포들, 서울 만한 크기의 호수, 주상절리, bison이라 불리우는 들소, elk라 불리우는 사슴, 곰 등이 있다. Super Volcano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이곳 지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그마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기상으로 볼때 머지않아 다시 폭발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쯤은 썩대밭이 된다는 섬뜩한 시나리오도 있다. 이곳 해발고도는 대체로 한라산과 백두산 높이를 오르내리는 2000에서 2500m 쯤 된다. 그래서 지금 9월초인데도 아침에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한다. 공원 내 숲을 살펴보면 산불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불에 타죽은 큰 나무옆에서는 작은 나무들이 생명을 키워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생태계의 순환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산불은 자연발생적이라 예방도 진화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순리에 맡겨둔다. 산불에는 역기능 못지 않은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 2박3일 머무는 동안 bison과 elk는 직접 봤으나 곰을 만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Salt Lake City와 물몬교

옐로스톤이 자리한 와이오밍주와 몬타나주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여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로 왔다. 꼭 들러야 할 만한 명소는 아니지만 가는 도중에 하룻밤을 묵어야 했기 때문이다. 온 김에 물몬교 본부를 찾았다. 교리아 좀 특별하겠지만 교회외관은 여느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신자 부부들이 길을 걸을 때에 꼭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이채롭다. 물몬교는 부부금실을 매우 강조하는가 보다. 다음으로 솔트레이크를 찾았다. 소금호수라고 들었기에 직접 맛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호수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4. Arches National Park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네다섯 시간 동안 반 사막지대를 운전해서 오후 네 시 넘어서야 아치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이곳 지명이 Moab이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해 동쪽 동내 지명이다. 주변의 지형이 성경 속의 광야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다. 아치국립공원에는 이름 그대로 아치형의 지형을 비롯하여 온갖 기묘묘한 지형들이 셀 수도 없이 지천에 깔려 있다. 유타 주는 이 공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한 예로 자동차 번호판에 Delicate Arch(첫사진)가 들어가 있다. EBS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미리 간접경험을 많이 한 덕에 그리 낯설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고층의 고급 사무실 빌딩들이 뽀뽀이 모여 있는 거리인 Park Avenue를 여기서 특정 지형의 이름으로 쓰고 있었다.



5. 존웨인과 포레스트 검프를 만나다

Arches 국립공원 구경을 끝내고 저녁식사까지 마치고 나니 저녁 9시가 됐다. 그때부터

세시간 동안 밤길을 운전해서 예약해둔 The View Hotel에 밤 12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때 창문 너머 펼쳐진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Monument Valley의 장관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존웨인이 영화를 촬영했던 곳이고 포레스트 검프가 뛰었던 바로 그곳이다. 존웨인이 이곳 Monument Valley에서 역마차(Stage Coach) 영화를 찍고선 B급배우에서 일약 스타 반열로 출세하게 됐다.

그 호텔은 원주민인 나바호부족이 자기네 땅 Navajo Nation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을 골라서 주변 환경에 사뭇 어울리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백인들의 국립공원이 아니라 나바호부족의 땅이어서 그렇게 절묘한 장소에 호텔을 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숙박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었으나 정말 값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진 중에 펼쳐이는 깃발은 나바호국의 국기이고, 호텔 식당 안에는 원주민 언어로 쓰여진 감사 인사말도 눈에 띄었다.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7)

금융상품(Annuity)의 위험성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역사는 길게 잡아 약 40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 이민해 왔습니다. 이민 온 사람 대부분이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직업이나 자영업이나 모두가 비슷합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민생활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많은 세월이 지나갔음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기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은퇴하면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들어본 연금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원금은 안전하고 높은 이자도 받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투자처를 물색해 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일반투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

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demand)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어뉴어티(Annuity)입니다.

“어뉴어티 투자는 주식폭락에도 원금을 보장하며 당신이 죽을 때까지 수입을 보장한다” 고 하면 주식투자 손실을 보았다든지, 주식시장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유혹적인 말입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장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어뉴어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과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투자하기 전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어뉴어티는 투자하면 보너스로 몇 퍼센트 이자도 준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반인

들이 금융상품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뉴어티는 보험회사에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신 사업가가 분명 아닙니다. 돈을 벌고자 어뉴어티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인(Salesman)을 통해서 팝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수수료(commission)를 지급합니다

어뉴어티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려봅니다. 수입보장 6~7%, 보너스 이자 및 퍼센트, 보험회사 이익금, 보험회사의 경비, 어뉴어티 판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을 모든 계산하면 보험회사는 손님들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나 월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보험회

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특출나게 투자를 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 투자자는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를 6~7%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에서 6~7%를 수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목돈에서 6~7% 수입을 받는다면 투자한 원금을 전부 돌려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꼭 확인합니다. 어뉴어티를 계약하기 전에도 발생하는 경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인한테 지급하는 수수료와 어뉴어티 전체 경비(total expenses)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참고로 월스트리트

(WSJ)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자에 "어뉴어티 계약 파기(Surrendering an Annuity)"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520개 어뉴어티를 조사해 본 결과 매년 부과되는 경비가 3.4%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병통치약을 찾습니다. 투자하는데도 투자 위험성은 없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종목을 찾습니다. 사실 이러한 투자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미국에 이민 와서 먹는 것, 자는 것 줄여가며 힘겹게 한 푼 한 푼 마련한 소중한 돈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삼십년 동안 필요한 돈입니다. “너무 듣기 좋은 투자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지난 호에 이어)

■ “최대한 가격을 낮게 부르자”

흥정이 머리싸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게 마련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능한 최대한 낮은 가격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셀러와 협상하며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도가 있다. 엄연히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면 그 거래는 단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다. 셀러나 셀러 측 에이전트는 매물에 대해 어느 정도 밀고 당기는 과정을 예상하고 임한다. 그런데 바이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하겠다고 나서면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즉 곧바로 이런 바이어와는 거래를 중단시키고 다른 바이어를 찾게 된다. 나중에 다시 올린 가격으로 노크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바이어는 마음에 드는 집을 자신의 실수로 기회를 날리는 셈이 된다. 흥정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임할 때 성사된다. 때문에 미리 원하는 집 주변의 거래 내용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시세를 알아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셀러는 이에 대해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 거래 무산시키는 복병 따로 있다

이와 관련해 반대의 이야기도 고민해 봐야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오퍼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무리한 매입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라 오퍼를 제출한 뒤부터는 셀러와 피 말리는 협상이 시작된다. 구입 가격 등 각종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나면 본격적인 주택 거래가 시작된다. 주택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P&S(Purchased & Sales Agreement) 사인을 했다고 마음을 놓기는 너무 이르다. 약 30여일 간의 기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 주택 거래가 완료되는 데 이 기간에 주택 거래를 무산시키는 복병들이 여러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 장애 요인들은 사전에 감지가 힘들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셀러와 바이어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 쉽다. 흔히 주택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 터마이트

터마이트 목재를 갉아 먹는 해충의 일종이다. 목재로 건축된 주택의 경우 터마이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목재 주택이 많은 MA의 경우 터마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거래 때 반드시 터마이트와 관련된 피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터마이트 검사 실시비용은 약 100달러 정도로 거의 대부분 바이어 측이 부담한다. 전문업체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서 형

태로 작성해 셀러 측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터마이트 검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보수작업이 실시되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완료되기 힘들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모기지 대출 은행 측이 터마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바이어 측이 터마이트 검사 결과에 따라 주택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터마이트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발견 확률이 높지만 주택 관리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생한다.

터마이트는 주로 습기가 찬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평소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터마이트가 발생하기 쉽다. 터마이트 수리비용은 피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심각한 경우 수천 달러까지 들어가기도 한다. 만약 셀러가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주택 거래는 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다.

■ 감정가

주택 감정가가 적절히 나오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난항을 겪게 된다. 주택 감정 절차는 모기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때 반드시 실시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권유된다.

대출 은행 측이 해당 매물의 적절한 감정가를 확인한 뒤 대출 승인을 하기 위한 의도다. 감정가가 셀러, 바이어 간 계약 체결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주택 거래가 일단 중지되지만 높게 나올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대출 은행 측은 감정가 이상의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

결국 감정가와 계약 체결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해결되어야 거래가 이어진다. 차액은 셀러나 바이어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씩 부담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지만 합의 과정이 쉽지 않고 차액이 크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셀러와 바이어, 대출 은행 합의하 2차 감정을 실시하거나 아예 대출 은행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래기간이 지연돼 셀러 측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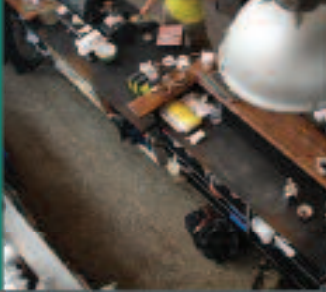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에서는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E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어떻게 하면 하버드 입학이 가능한가?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명예는 학생이 추후 인생에서 성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크리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버드대학이 좋은 직장과 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하버드 진학에 관한 많은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너무도 한국적인 사고, 즉 학교 성적, SAT와 AP 성적을 많이 강조하는 글들을 읽고 많이 실망을 했다. 하버드를 보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글을 쓴 느낌이다.

하버드는 매년 약 2000-2200명의 신입생들을 뽑고 있다. 이들 중 약 1660-1800명의 학생들이 최종 신입생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 아카데미 흥미와 기록, 배경과 지역적인 요소, 무형의 요소, 리쿠르트 등 다양한 입학 요소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선발의 골격은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입학을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것, 즉 훅(hook)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하버드는 특별한 후보다 "학교가 가진 리소스를 얼마나 잘 활용했고 주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를 많이 보는 학교이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입학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카데미 분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이 아카데미과 자신의 잠재력의 최고까지 도달했는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 주었는지? 자신의 흥미 있는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 했는지? 진취성 (initiative) 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없다면 많은 탐색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동안 어디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을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1. 우수한 학교 성적

하버드의 경우는 학교별 성적 평가와 기준에 차별성을 두지 않고 성적 자체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학교 등수가 몇 등인지는 전체 학년에서 상위 10%이내에 포함된다면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받은 점수가 그 학교 전체 상위 10%이내에 포함되는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좋고, 큰 폭의 변화나 하락세, 그리고 평균보다 떨어진 12학년 성적은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의 형태이다.

2. 도전적인 과목 선정

학교마다 코스 선정기준과 졸업 요구조건이 다르지만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등에서 honors 나 AP과목을 수강하여 각 분야에서 적어도 하나의 AP 시험을 보는게 좋다. 하버드는 무조건 AP 개수가 많은 것을 선호하기보다 기본 과목을 충실하게 수강하면서 어려운 과목까지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

교이다. 보통 칼리지 카운셀러 추천서에 각 학생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중 most Demanding, Very Demanding, Demanding, Average, Below등의 카테고리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이 수강하지도 않은 AP 과목을 AP 개수만 늘리기위해 시험을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평균 하버드에 입학하기된 한국 학생들(11학년까지) AP 개수는 5-6개 정도였다. 가능하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분야에서 AP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3. SAT1과 SAT 2점수

지난 10년간 하버드에 입학하기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영어 750, 수학 750으로 1500이 가장 이상적인 점수이다. 물론 영어가 최소 700점 이상이면 좋고 영어와 수학이 합하여 1450이상이면 SAT1 점수로 입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SAT2의 경우는 가능하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과목에서 하나씩 최소 700점 이상의 점수가 있다면 가장 좋다. 800점만 맞기 위해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장 우둔한 입학 전략이다. SAT2는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의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문과와 이과 과목을 균형 있게 시험보는 것이 좋다. 특히 하버드의 경우는 교양학부 중심 대학으로 다양한 아카데미 분야에 균형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을 선호하기에 SAT2는 체계적으로 저학년 때부터 한과목씩 끝내는게 좋을 것이다.

입학하기된 한국 학생들의 평균 SAT점수는 영어 730, 수학 780점 이었다. 가장 많이본 SAT2는 Math 2C, Chemistry, US History과목 이었다. 비록 하버드가 SAT2 두과목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3개 이상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4. AP점수

AP는 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점수를 사용한다. 원서 작성시 학생이 직접 원서에 점수를 기재하고 대학은 점수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입학하기 후 공식적인 점수를 리포트 하면 학교별로 일정 학점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

AP는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지, 단지 AP 점수의 개수만 많다고 대학 입학에 유리하지 않다. 하버드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얼마나 균형 있게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도전적인 과목을 충분히 수강하면서 다른 활동들도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AP과목을 많이 제공 못하는 학교인 경우 학생이 대학에서 여름학기 동안 대학 과목을 수강하거나 독립적으로 AP를 준비하여 시험을 치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지원 대학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학교마다 입학 조건이나 지원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의 독자라면 모두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SAT나 SAT Subject Test 등의 표준 시험은 물론, 원서에 필요한 에세이나 유학생이라면 TOEFL, 재정 증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다른 경우도 많다. 특히 인터뷰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과정 중 하나다.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 포함되는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원 학생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입학 사정관(혹은 입학사정에 영향력이 있는 재학생)과 대면을 하게 되는, 학생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On-Campus Interview가 첫 번째다. 이런 경우, Admission Office 혹은 가까운 회의실에서 격식을 차린 분위기로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면접관이 정장 차림인 경우가 많다. 인터뷰 자체는 편하게 대화를 하며 능숙한 면접관이 지원 학생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학생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정장, 적어도 셔츠와 재킷 차림일 테고, 불편한 기분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며,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특이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등 특별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Johns Hopkins University와 Carnegie Mellon University,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등 소수의 대학들이 Admission Office에서 진행하는 On-Campus Interview를 option으로 남겨두고 있다.

더 흔하고, 대학 측과 지원하는 학생 모두 더 선호하는 방식은 해당 학교의 졸업생 출신이 진행하는 Off-Campus Interview다. 물론 아무 졸업생이라고 지원 학생의 인터뷰 권한이 주어지는는 않는다. Yale이나 Princeton 처럼 Alumni Schools Committee(ASC: 졸업생 교육 위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면접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Harvard나 Stanford처럼 졸업생 중에서 지역별로 지원자를 받아서 지원 학생과 짝지어 주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 자체

대학교 인터뷰 (1)

는 지원자가 위치한 지역의 조용한 카페나 도서관, 혹은 해당 졸업생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교내 입학사정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일부러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과의 인터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선배에게 질문을 하듯, 학교 생활이나 졸업 후의 경험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학교가 학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표시고, 그만큼 학생은 원서나 에세이에 차마 다 쓰지 못한 개인적인 면면도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열 수도 있고, "현재 이수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수업은?" 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인물, 감명 깊게 읽은 책, 최근에 본 영화나 연극, 취미와 특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클럽에서의 역할, 여름 방학 동안의 경험 등 학생의 특성이나 인성을 평가하는 질문이 많으니 미리 예상 질문과 답을 준비해가면 도움이 된다. 특히, 대학 생활에 대해 기대되는 점이나 두려운 점, 대학 졸업 후 혹은 10년 뒤의 계획, 인생에

서 가장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 등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질문도 물어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받았던 "우체국 측의 실수로 혹은 컴퓨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원서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나 인터넷 경험담에 나온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하는 면접관도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거나 말이 막힐 수 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 나가는 것이 좋다.

사실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는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가? (혹은 우리 학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본인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이다. 학교와 학생의 상성(fit)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 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 11, 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 2 /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